

헬로 넥센

빙글빙글

Trend

변화를 향해 굴러가는 것들, 나은 세상을 위한 움직임 - 3

유행



SPECIAL
THEME빙글뱅글:
유행

6 24h 빙글뱅글
인구변화로 읽는
한국사회의
미래 트렌드

10 포토제닉을 찾아라
Hello NEXEN
2022 SUMMER

14 일상을 깨우는 여행
태양처럼 화끈한
힙! 플레이스, 양양

20 넥센인의 pick
“합하다 합해”
넥센인이 생각하는
지금 트렌드는?

한 바퀴 달리기

26 ISSUE ①
넥센타이어
제80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28 ISSUE ②
‘넥센타이어 넥스트레벨 골프데이’
개최

30 ISSUE ③
2022 넥센타이어
골프타이어 어워즈

32 ISSUE ④
미션! 넥센타이어
비전 도미노 쌓기

36 ISSUE ⑤
독일 ‘더 타이어 킬른 2022’
전시 참가

38 ISSUE ⑥
감사 메시지로 동료에게 마음을
전하는 ‘퍼플 포인트’

40 ISSUE ⑦
나도 엄마 아빠 따라 회사 갈래요

44 TIRE TECH
타이어테크 양산점

한 바퀴 어울리기

50 Color of NEXEN
엔페라 레이싱팀 레이싱 카

54 넥센 알고리즘
넥센인이 엄선한 혼자 쓰기 아까운 앱

56 NEXEN CSR
2022년 승진자와 함께한
‘사랑의 자전거 만들기’

58 친환경 로드
우리가 쓰고 버린 물은 다시 돌아온다

한 바퀴 쉬기

64 미래참견시점
하늘길을 날아서 이동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 UAM

68 트렌드가 뭐이요?
2022년 대한민국,
Y2K 감성에 빠지다

72 마음처방전
무더운 밤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북 큐레이션

76 별별 스포츠
감동은 덤,
스포츠 드라마와 영화의 매력

78 NEWS

82 함께해요!

유행

하루에도 수만 개씩 새로운 것이 생기고, 이슈가 되고 사라짐을 반복합니다.
지금의 흐름이 지겨워 새로움을 찾아 차별화하려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유행이 시작되고 트렌드로 발전됩니다.
유행은 돌고 돌면서 새로운 걸 창작하는 환경을 만들고 사회를 순환시킵니다.



헬로우 넥센

2022년 〈헬로우 넥센〉에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끝없이 빙글뱅글 도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22년 7월 1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문화혁신팀
기획 및 출판 (주)대통기획 02-2269-3613 ISSN 2765-2904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헬로우 넥센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pecial Theme

Trend

빙글뱅글 : 유행

탐색하고
꿈꾸고
발견해보자

-마크 트웨인

24h 빙글뱅글

포토제닉을 찾아라

일상을 깨우는 여행

넥센인의 pick

인간은 끊임없이 새롭고 기발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의 등장은 인류를 발전시키고 나아가게 하죠.
당신의 주위를 탐색하고, 꿈꾸고, 새로움을 발견하세요.

인구변화로 읽는 한국사회의 미래 트렌드

트렌드는 강력한 사회적 추진력자 모든 활동을 담아내는 원시 코드다. 하지만 직면하기 전에는 안 잡히는 뜬구름 같은 게 또 트렌드다. 트렌드 기반조건은 사실상 인구변화로 정리된다. 시대변화의 반영인자 중 인구통계만큼 강력하고 설득적인 변수는 없기 때문이다.

Population

전영수 교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서 혁신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인구통계와 세대
분석으로 글로벌
시대의 인구
트렌드를 읽어내며
저성장·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사회
시스템 구축 등
'늙어가'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분야별 솔루션을
고민한다.



메가 트렌드 특징 3가지

- 1 새로운 시대 개막
(최소 30~50년 유지)
- 2 삶에 미치는
포괄적 영향력
- 3 어디서든 감지되는
동반 현상

미래를 선점할 기회를 찾는 방법

‘웨인 그레츠키’란 전설적인 아이스하키 선수가 있다. 1999년 은퇴까지 최우수선수만 9번 뽑힌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누군가 비결을 묻자 “대부분 펍(공)을 따라가지만, 중요한 건 갈 곳을 짐작해 먼저 뛰어가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다. 늘 그렇듯 뒷북보단 선수를 치는 게 관건이란 얘기다. 당장은 안 보여도 방향성을 읽고 조금 먼저 움직이면 기회가 있어서다. 대부분의 조직이 크든 작든 싱크탱크를 두는 이유다. 이들의 일은 하나로 요약된다. 트렌드 발굴이다. 미래를 지배할 유력 현상을 찾아 길목을 지키려는 차원이다. 트렌드에 주목할 이유는 넘쳐난다. 트렌드는 다가올 앞날의 삶을 커버한다. 상당한 파급력까지 갖췄다. 승자로 남자면 트렌드를 확실히 읽고 대

비해야 한다. 경쟁 승리의 원류가 트렌드 장악 여부라 봐도 과언은 아니다. 미래학자 페이스 팝콘은 “트렌드를 모르면 절대 사업하지 말라”라고 까지 했다. 피트 드러커조차 “트렌드를 예측한다고 100% 성공하진 않아도 트렌드를 못 읽으면 100% 실패는 보장한다”라고 했다. 성공모형을 보건대 반박하기란 어렵다. 투자시장도 뒤따르는 추격매매보단 한발 앞선 길목 선점을 강조한다. 이때 돈이 지나가는 길목은 트렌드로 점쳐진다. 트렌드야말로 강력한 사회적 추진력자 모든 활동을 담아낸 원시코드인 까닭이다. 트렌드, 즉 시대 유행은 세분화된다. ‘초기 모드 → 소비 변화 → 기술 가세 → 사회 현상 → 메가 트렌드’의 개념 연결이 그렇다. 뒤로 갈수록

강력한 트렌드다. 메가 트렌드의 특징은 3가지다. △새로운 시대 개막(최소 30~50년 유지) △삶에 미치는 포괄적 영향력 △어디서든 감지되는 동반 현상 등이다. 개인·조직의 미래 대응은 메가 트렌드로 확산될 때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왕왕 가짜 트렌드도 있기 때문이다. 패드·패션 등이 그렇다. 패드(Fad)는 번덕스러운 단기 유행을 뜻한다. ‘For a Day’의 약자다. 패션(Fashion)은 일시적 열풍으로 주기·연속적인 반복성을 갖는다. ‘이달의 베스트셀러’ 같은 식이다. 트렌드는 그다음이다. 중장기적인 추세 동향으로 예측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트렌드가 장기간 삶에 정착되면 혁신이 된다. 혁신은 트렌드의 안착을 의미한다.

저출산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

현재는 과거와 맞닿으며 미래를 향한다. 따라서 미래 트렌드의 이해·예측은 과거가 잉태한 현실의 변화로부터 비롯된다. 어제·오늘의 정밀한 변화를 읽는 방법에서 미래사회를 장악할 메가 트렌드를 찾자는 얘기다. 최근 10년 한국 사회는 숏한 변화를 반복했다. 저성장발 인구변화 속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게임 원칙·제도 기반의 수정실험이 계속됐다. 고성장 때 만들어진 고용·가족·출생 등 인생 모델도 달라졌다. <트렌드 코리아>의 최근판을 요약하면 개인취향 분화 심화(나노사회, 초개인화, 세포마켓), 새로워진 인생가치(러스틱 라이프, 편리미엄, 소확행), 달라진 세대 출현(어려진 X세대, 오팔세대, 픽미 세대), 추앙적 자본주의(머니러시, 자본주의 키즈, 원초본능), 가상공간 몰두사회(엔택트, 멀티 페르소나, 나나랜드) 등 다양한 키워드로 과거와 결별한 신 트렌드의 후보가 제안된다.

다만 메가 트렌드의 3대 조건인 유통기한·생활영역·커버지역 등을 보건대 1~2세대 후까지 한국 사회의 뉴노멀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점에서 더 눈여겨봐야 할 트렌드 기반조건은 사실상 인구변화로 정리된다. 미래를 읽자면 인구를 아는 게 기본이자 전부다. 시대 변화의 반영 인자 중 인구통계만큼 강력하고 설득적인 변수는 없다. 인구만 알면 미래는 상당부분 예측된다. 즉

인구 이슈는 교양상식을 뛰어넘어 미래생존을 위한 개인·조직·자원의 실존 화두다. 삶이 변했고 변한다면 십중팔구 기저 원인은 인구변화일 수 밖에 없다. 미래생존의 우선 변수가 인구 트렌드란 의미다. 뉴노멀로 정리되는 신 시대의 작동 방식·게임 규칙은 인구변화에 올곧이 투영된다.

인구변화는 광범위하고 파괴적이다. 시대 변화의 모태·상수통계로서 인구변화는 살벌함과 놀라움의 연속이다. 출산율(합계특수)은 도시국가들 뿐 정상국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1명 이하를 2021년(0.81명)까지 4년 연속 찍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까? 표준편차에서 벗어났지만 곧 되돌아올 이례적인 경로로 보기란 어렵다. 출산카드는 가성비 낮은 후순위 선택지로 대부분 박탈·분노감 속에 출산본능을 내려놓는다. 결혼 허들도 힘든데 거저 마련은 불가능에 가깝다. 외신도 예외·충격적인 한국적 인구경로에 주목한다. '다이내믹 코리아'의 신버전으로 한국형 초저출산을 다룬다. 근본수술 없는 단기처방으로 갈등형 자원쟁탈은 각자도생이란 새로운 트렌드를 낳는다. 즉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추구된다. 시나브로 청년인구는 시대변화를 품어 안기 시작했다. 이들이 나이를 먹으면 과거와 달라진 중년·노년의 뉴노멀 신 트렌드는 확장될 수밖에 없다.

미래를 읽자면 인구를 아는 게 기본이자 전부다. 시대 변화의 반영 인자 중 인구통계만큼 강력하고 설득적인 변수는 없다. 인구만 알면 미래는 상당부분 예측된다.



New Trend



인구변화로 보는 10가지 신 트렌드

그렇다면 인구변화발 미래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까? 배경분석·현실풍경·상호관계 등 연결성·설명력을 토대로 대략 10가지 신 트렌드가 예상된다. **1** 먼저 잃어버린 가족의 꿈속에 부각된 여성파워다. 힘세진 여성은 미래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제격이다. **2** 반면 제조기반의 근육시대가 끝난 후 남성의 역할·존재감은 희석된다. **3** 사실상 중성화에 익숙한 청년인구는 오직 살아내고자 고독을 선택한다. **4** 또 고용축소로 시작될 돈도 꿈도 없는 감축성장은 숙명적인 가난을 뜻한다. **5** 오늘날도 모를 판에 미래위험은 더욱더 냉혹하게 다가올 확률이 높다. **6** 저성장의 생존경쟁이 일상다반사로 펼쳐지면 소비시장은 살림을 축내는 필박적인 시장구조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7** 또 돈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때 이른 경험축적은 청년세대에게 올곧이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삶의 선택지를 고르도록 주선한다.

그렇다고 인구감소의 주역이자 희생양인 후속세대만 힘들고 외롭지는 않다. 불행은 무차별적이라 인생 2막을 빈곤·고립으로 시작할 고령집단 역시 고민은 깊다. **8** 빈부격차가 커지는 중에 부자노인은 도시로 몰려들고, 빈곤노인은 도시추방을 선고받는다. **9** 도시가 부(富)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면 정치는 표와 삶을 거래하려는 거대한 표류집단인 노인인구에 지배당한다. **10** 그럼에도 살

자면 일의 속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은퇴인구의 냉엄한 현실압박이다. 하지만 뒤집어보면 10대 인구관련 미래 트렌드는 위기라는 가면을 쓴 기회일 수 있다. 당장은 살기 위한 변화가 트렌드로 연결되나, 길게는 지속을 위한 공감·혁신작업의 출발에 가깝다. 미래 트렌드의 불편·충격을 줄이고 막아줄 대안이 마련되면 한국 사회의 스케일업에도 긍정적이다.

트렌드를 알고 싶은 건 모두의 바람이다. 시절이 불확실할수록 광범위한 미래 예측과 선행적인 대응 마련의 욕구는 커진다. 장밋빛 낙관론과 암울한 묵시록을 두루 살피되 취사선택해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좋다. 단 한발 앞서 기회를 잡자면 치밀한 관심과 정교한 접근은 필수다. 트렌드를 찾는데 정답은 없지만, 방법은 많다. 그리고 미래 트렌드의 쟁거야 할 공통분모 중 인구변화만큼 파워풀한 재료는 없다. 인구의 양적·질적 추세를 벗어난 미래경로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벗어난 미래는 없듯 시스템적인 현재분석은 앞날을 읽는 연결 힌트다. 단편적인 사실조각을 묶어 미래그림으로 완성하는 식이다. 인구지표는 단발숫자를 완성대본으로 승화시킬 착화제로 제격이다. 거인의 어깨에서 바라보는 접근은 다른 말로는 인구지표로 미래경로를 찾으란 말과 같다.

반복되는 일상 속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포토부스 이벤트가 이번에는 넥센타이어 양산공장을 찾았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 찾은 양산공장은 변함없는 풍경 속 같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전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두 시간 남짓 진행된 포토부스 이벤트는 짧지만 강렬한 추억으로 넥센인들의 마음에 각인됐다.

요즘 사진 트렌드,
인생 네 컷

Hello NEXEN

2022 SUMMER

(YP)압출파트 홍성욱

여름에 아이랑 캠핑에 가서 좋은 추억을 남기려고 합니다. 넥센인들도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YP)생산기술파트 허경훈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을 느끼러 떠납니다~ 제가 제주에 안부 전해드릴게요.



YP공무팀

Q.
넥센인들의
2022년 여름 계획과
동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같이 사진 찍으면서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올여름 좋은 추억들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



YP환경안전팀

코로나 시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산공장의 안전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봅시다!



(YP)공정관리파트
건강하고 시원한
2022년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SHE기획팀

왁자지껄 사진 찍으니 재미있네요.
사고 없이 열정적인 여름 보내세요~



YPMES파트

Cool하고 Hip한 여름을
기다리며, 오늘도 파이팅!



YP기업문화팀 김철홍 책임

매일매일이 오늘 이벤트처럼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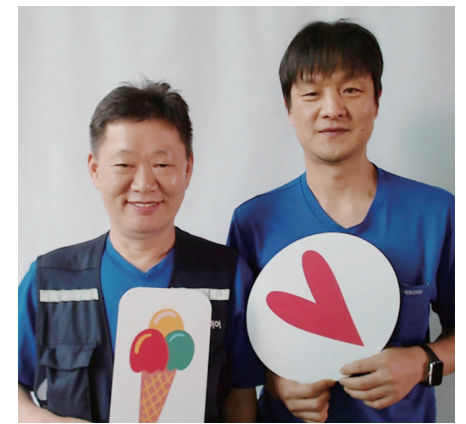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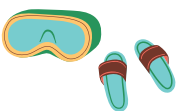
환경안전팀 & 품질검사팀 & 생산관리팀 & 생산기술팀

이벤트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면서 건강 관리 잘하세요~♡



(YP)PCR파트 성규진

동료와 펜션으로 놀러가서 낚시도 하고
물놀이 하면서 좋은 추억 만들어오겠습니다.



(YP)PCR파트

올여름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Hot, Cool, Hip한 여름 나기

MZ 세대들이 친구들과 놀 때 꼭 들른다는 곳은? 바로 셀프 포토부스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사진으로 찍고 인화해서 앨범에 차곡차곡 넣어 추억을 쌓는다고. 평범한 6월의 어느 날을 특별한 날로 바꾸기 위해 양산공장 식당 입구에 요즘 핫하다는 인생 네 컷 포토부스가 설치됐다.

여름 분위기 물씬 풍기는 다양한 소품들에 눈길을 사로잡힌 임직원들은 흥분 듯이 카메라 앞에 섰다. 그리고 어릴 적 스티커 사진을 찍던 기분을 내며 인생 네 컷을 찰칵! 즉석에서 인화된 사진과 카톡으로 전송된 움짤을 보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저마다 핫하고 힙한 여름 나기를 준비 중이라는 넥센인들. 오랜만의 가족 캠핑, 동료들과의 펜션 여행, 친구들과의 해외여행 등을 기대하며 모든 넥센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올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모두의 바람처럼 누구보다 Hot, Cool, Hip한 여름, <헬로우 넥센>도 응원한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멋지게 타고 넘는 순간을 기대한 건 아니다. 그저 밀려오는 파도에 잠시 올라타는 정도로도 만족할 생각이었다. 그래도 소싯적에 운동 좀 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한데, 웬걸. 이거 만만치가 않다. 나아가고, 빠지고, 밀려왔다 다시 나아가기를 무한 반복하는 사이 슬슬 오기가 생긴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이곳은 동해를 품은 강원도 양양이다.

태양처럼
화끈한
힙! 플레이스

양양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서피비치



이국적인 풍광과 여유가 느껴지는 서피비치

프라이빗 해변에서 만끽하는 서핑의 짜릿함

서퍼들에게 강원도 양양은 부산 송정, 제주 중문과 함께 서핑의 성지로 불린다. 그 중심이 하조대 해변에 자리한 서피비치다. 40여 년 간 군사지역으로 지정돼 민간인 출입이 금지됐던 이곳은 2015년에 서핑 전용 해변으로 다시 태어나며 연간 50여만 명이 찾는 양양,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변으로 자리 잡았다.

온몸을 통으로 감싼 웨트슈트를 입고 어른 키보다 큰 보드를 챙겨 해변으로 나선다. 당장이라도 바다에 뛰어들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다. 서핑은 고무튜브에 의지해 유유자적 파도를 타는 물놀이와는 다르다. 서핑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강습은 필수. 서피비치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강사진을 갖춘 '서프 스쿨'을 운영한다. 초보자부터 중상급자까지 수준별 맞춤 강습을 진행해 초보자도 쉽게 서핑을 즐길 수 있다. 초보자를 위한 입문 강습은 이론 강습 30분, 수중 강습 1시간, 자율 서핑 1시간 30분으로 꾸며진다. 강습비는 4~6만 원 내외. 웨트슈트 대여 비용(1~2만 원)은 별도다. 강습 예약은 홈페이지(www.surfyy.com)에서 가능하며, 강습 경험 2회 이상인 사람에 한해 보드를 대여해 준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 모래밭에서 진행되는 강습 대부분이 '테이크 오프(Take-off)'에 대한 내용이다. 서핑의 기본 동작인 테이크 오프는 비행기가 날아오르듯 보드를 이용해 파도에 올라타는 기술. 활주로로 내달리는 비행기처럼 저어가다(패들링) 상체를 들어(푸시 업) 몸을 일으키면(스탠드 업) 테이크 오프 성공이다. 푸시 업과 스탠드 업은 한 동작처럼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어깨너비로 벌린 뒷발은 보드의 중심축과 90도, 앞발은 45도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 일어설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 충격을 줄이면 중심 잡기가 한결 수월하다. 오른발잡이는 오른발을, 왼발잡이는 왼발을 뒤쪽에 두면 된다. 마침내 입수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당연한 얘기지만 초보자는 파도타기에 앞서 물 위에서 중심 잡는 법에 먼저 익숙해져야 한다. 평평한 모래밭과 실 새 없이 출렁이는 바다는 말 그대로 천지차이. 모두가 알다시피 이 건 머리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무리 패들링이며, 푸시 업이며, 스탠드 업을 되보어도 몸이 감각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 씀. 방법은 하나다. 바다에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빠져보는 것. 온몸에 각인된 실패의 기억보다 훌륭한 강사는 없다.

콧속이 얼얼한 정도로 바닷물을 들이킨 뒤에야 비로소 몸이 반응한다. 낯설게 느껴지던 것들이 하나도 낯설

지 않게 느껴지는 그 순간,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아낸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보드 위에 섰고, 얼떨결에 파도를 탔다. 아주 짧게. 그때의 기분은? 두 발 자전거 타기에 처음 성공했을 때와 비슷하다. 어리둥절하면 서도 뭔가 해낸 듯 으스스해지는 기분. 자율 서핑을 위해 주어진 1시간 30분 동안 테이크 오프에 성공한 건 손에 꼽을 정도지만, 여전히 한 번의 테이크 오프를 위해 열 번, 아니 그 이상 바닷물에 빠져야 하지만, 물에 빠지는 게 더 이상 싫지 않은 걸 보면 그새 서핑의 재미에 푹 빠져버린 모양이다. 서피비치에서는 서핑뿐 아니라 서프요가, 패들보드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할 수 있다. 오전 오후 한 차례씩 진행하는 서프요가는 1인 3만 원, 패들보드 대어는 3시간에 4만 원이다. 서피비치 출입은 자유롭지만 빈백존, 해먹존, 침낭존, 선베드존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서피패스(1만 원)를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펍&라운지'에서는 각종 음료와 주류, 간단한 먹거리를 판매하는데, 일몰 후에는 멋진 비치 파티가 열린다. 서피비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피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해안길 119
☎ 09:00~20:00 ☎ 1522-2729



서피비치에서는 수준별 맞춤 서핑 강습을 운영한다.



죽도해변은 파도가 잔잔해 초보 서퍼들에게 인기가 좋다.



사시사철 서퍼로 불리는 죽도해변

양양의 떠오르는 라이징 스포츠, 죽도해변 & 리버티

죽도해변은 서피비치와 함께 양양을 대표하는 서핑 명소다. 동호향과 죽도 사이에 자리한 아담한 해변은 사시사철 서핑을 즐기려는 서퍼들로 붐빈다. 서피비치에 비해 수심이 완만하고 파도가 잔잔해 초보 서퍼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죽도해변 인근에도 서피비치 못지않게 많은 서핑숍이 모여 있어 강습이나 보드 대여가 수월하다. 워낙 많은 서퍼가 모이는 해변이다 보니 서퍼들의 안전을 위해 드론을 활용해 해변 상황을 수시로 체크한다. 죽도해변에서 서핑을 즐긴 뒤에는 해변 남쪽 끝에 우뚝 솟은 죽도산에 올라보는 것도 좋다. 최근 이곳에 들어선 높이 20m의 전망대에 서면 죽도해변과 멀리 설악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죽도전망대 옆 죽도정은 남대천, 대청봉, 오색령, 오색주전굴, 하조대, 남해항, 낙산사의상대와 함께 양양 8경 가운데 하나다. 서피비치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자리한 리버티 스케이트파크는 양양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핫 플레이스다. 미국 스타일의 보울 스케이트파크인 리버티는 유재석, 비, 이효리가 함께한 프로젝트 그룹 '썩썩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뮤직 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지며 유명세를 탔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홍보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즌2' 양양-강릉 편에 소개되기도 했다. 지상에서 서핑 턴과 카빙 같은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리버티의 보울 연습장은 난이도가 높기로 소문나 스케이트보드 마니아들로 늘 붐빈다. 건물외벽과 연습장 곳곳에 그려 넣은 그래피티 작품도 인상적이다. 연습장 이용자를 위한 샤워시설은 물론 보드와 티셔츠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아담한 숍도 갖췄다. 리버티 스케이트파크 이용시간은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토·일 저녁 9시). 이용료는 1일 15,000원이며 초급 강습료는 시간당 7만 원이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은 휴무.

죽도해변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죽도해수욕장
☎ help@jukdo-beach.co.kr

리버티 스케이트파크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2길 48-54
☎ 13:00~20:00
☎ 하루 15,000원, 한 달 150,000원
☎ 070-7770-2220



그룹 '썩썩리' 뮤직비디오 배경으로 유명한 리버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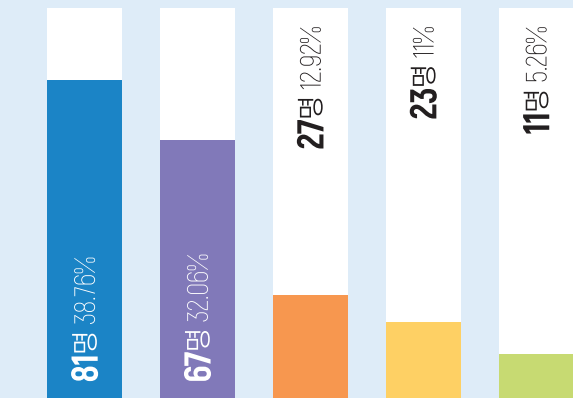
“힙하다 힙해!” 넥센인들이 생각하는 지금 트렌드는?

트렌드와 유행에 민감하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람들의 관심과 욕구가 어디로 향하는지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다. 트렌드세터는 꾸준히 새롭고 힙한 것을 찾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세상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낸다. 넥센인들이 생각하는 지금 트렌드는 과연 무엇일까?

설문기간: 2022.06.09~06.10 / 참여자: 200명



Q 핫플레이스, 얼마나 알고 있나요?



- SNS에 올라온 핫플은 한번쯤 찾아가서 인증샷 찰칵 **81명** 38.76%
- 오오! 친구들 따라 갔는데 핫플이래는데요! **67명** 32.06%
- 핫플 문의 환영! 지역별로 친구들에게 추천 가능 **27명** 12.92%
- 핫플, 그게 뭐죠? 뜨거운 와플인가요? **23명** 11%
- 기타 **11명** 5.26%
 - TV에는 나와야 핫플레이스 줄 안다. - 김기현
 - 일과 육아로 인해 핫플은 잊고 산지 오래... - 박경만

Q 머나먼 패셔니스타의 길, 도전하고 싶은 유행 아이템은?

운동복인 듯 일상복인 듯
에슬레저룩
112명
52.34%

1980년대 풍 빅숄더, 오버사이즈 재킷
49명 22.90%

브랜드 로고가 정중앙에 큼직하게 박힌 티셔츠
27명 1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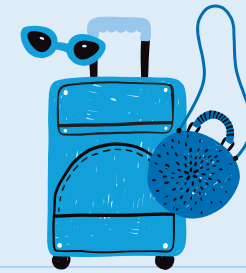
기타
14명 6.54%

- 라떼는... 바지 질질 끌고다니던 힙합~ 인데... ㅋㅋ - 유민
- 클래식은 언제나 옳다, 여름엔 언제나 폴로셔츠 - 임영민

다시 돌아온
Y2K 로우 라이즈(골반을 드러내는) 패션
12명 5.61%

Q 올해를 워케이션(work+vacation)을 떠날 수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업무를 모두 끝마치고
바다 또는 산으로
홀썩 떠나는 장기휴양형
101명
46.33%



- 56명** 25.69% 도심 속 호텔에서 업무를 마치고 카페일을 한 잔을 즐기는 도심형
- 30명** 13.76% 인적 드문 시골에서 조용히 업무를 하며 힐링하는 농촌체험형
- 27명** 12.39% 업무든 휴식이든, 뭐니뭐니 해도 편안한 내 집이 최고! 집콕형
- 4명** 1.83% 기타

Q 나를 사로잡은 방송가 대세 예능 유형은?

귀호강에 감동까지 더한
음악경연 예능
80명 36.04%

나대지마 심장이, 설렘폭발 연애 예능
47명 27.17%

감동과 재미 다 잡는 스포츠 예능
43명 19.37%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 반려동물 예능
30명 13.51%

기타
22명 9.91%

-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유 퀴즈를 보며 공감 - 서용준
- 유튜브의 b급 감성 예능 - 박범규

Q 다음 중 어떤 IT 기술을 배워보고 싶나요?

정보가 경쟁력,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77명 31.82%

미래를 설계하는 프로그래밍, 코딩
69명 2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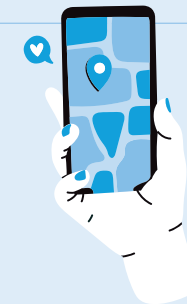
상상을 현실로 3D 프린팅
54명 22.31%

대중들의 취향저격 UX, UI 디자인
37명 15.29%

기타
5명 2.07%

- AI 로봇트 관련 기술 - 탁세원
- 엑셀부터 마스터 하겠습니다 - 김병갑

Q 어떨 때 본인이 트렌디하다고 느끼나요?



- 신상 맛집을 많이 알고 있을 때 - 김선주
- 신상템 정보에 강할 때 - 김세경
- 사람 많은 북적북적한 핫플 분위기에 맞춰 여전히 신날 때 - 박숙진
- SNS 속 핫플의 방문여부를 물어보면 거의 다 가본 곳 일 때 - 황준수
- 유행하는 아이템을 먼저 사용하고 있을 때!!!! - 이선미

- IT 트렌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 이병훈
- 아이돌 음악 비교적 잘 알 때...? - 이창훈
- 유행하는 밈을 알고 있을 때 - 임옥재
- 새로운 드립을 바로 캐치하고 받아칠 때 - 이지훈
-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생활에 대한 최신 정보를 꿰고 있을 때 - 이주희
- 젊은 친구랑 대화가 잘될 때? ㅋㅋ - 김무열
- 유튜브에서 한창 뜨는 영상을 나도 봤다는 거 - 박성현
- 사람들이 새로운 소식이나 최근 유행하는 것들을 나를 통해 알게 될 때 - 권소희
- 변화에 대해 거부감이 들지 않을 때 - 유재훈
-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을 때~ - 정민철
-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흥미를 느낄 때 - 고용운

넥센인을 위한 트렌드 뉴스레터 추천

관심 분야의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제공받는 뉴스레터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 핫한 트렌드 정보를 큐레이팅하는 다양한 뉴스레터를 소개하니 구독해보자.



MZ세대 신조어와 유행템이 궁금하다면? 캐릿

MZ 용어 사전, Z세대 최신 유행템 등 MZ 세대가 현재 가장 열광하는 콘텐츠들을 빠르게 전달한다. 20대 트렌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대학내일에서 만드는 뉴스레터로, '2년 만에 학교 간 Z세대 근황', '한 물건 브랜드 SNS 계정이 되지 않는 법!', '마스크 벗은 Z세대들, 여기서 놀고 있었네?' 등 요즘 세대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모아 전한다. Z세대를 타겟으로 한 브랜드 마케팅 사례 등도 제공하고 있어 20대 대상 마케팅을 기획하는 사람들의 필수 구독 뉴스레터다.

또 '요즘 애들은 뭐하고 사냐' 궁금하다거나 라떼에서 벗어나 20대와 대화를 재미있게 나누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추천한다. 캐릿의 좋은 점은 실제 1020 자문단이나 MZ 세대 취재원들의 후기나 인터뷰 등을 실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해의 신조어와 밈, 브랜드 마케팅 등을 정리한 '트렌드 능력고사'라는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힙 지수도 체크할 수도 있다.



각종 시사 정보를 한눈에, 뉴닉

뉴닉은 유익한 시사 정보를 모아서 서비스해준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고 싶지만 신문 볼 시간, 포털 뉴스 클릭할 시간 없이 바쁜 사람들을 위해 주중 매일 아침 뉴스레터를 보내준다. 46만 명이 넘는 전체 구독자 중 80% 이상이 20대라서 20~30들이 좋아할 만한 친근한 대화체로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기 때문에 가볍게 읽기 좋다. 뉴스 상단에는 관심 있게 눈여겨볼 3가지의 주요 뉴스를 스텝별로 구성해 해당 뉴스의 배경, 현황, 전망 등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1분 뉴스 코너를 통해 4~5개의 단신 코너를 소개하며 정치, 경제, 국제, 노동, 인권, 환경 등 폭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다. 찬반 논란이나 다양한 시점의 이슈는 피사스테이션이라는 코너를 통해 구독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등 최대한 편향되지 않게 구성한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안녕, 개미! 까탈로그 담당자 에디터B야. 최근에 겔 노트9 ➡ Z폴립으로 기변을 했어. 지난주만 해도 "스펙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서 굳이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는데, 어느새 내 손엔 영롱한 미러 퍼플이 반짝이고 있었지. 사실 그동안 몇 번이나 고민했는지 몰라. 아침에 사려고 했다가 저녁엔 안 사려고 했다가, 미러퍼플 사려고 했다가 블랙 사려고 했다가. 이렇게 자주 흔들릴 거면 차라리 갈대로 태어날 걸 그랬어. 하지만...! 뭐 어때? 고민하고 흔들리는 과정도 나쁘지 않잖아. 결국 마지막엔 내가 직접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게 중요하지. 어제 하루 동안 정답과 오답 사이에서 고민했을 수험생들을 응원하며 까탈로그 출발할게. 까탈로그엔 정답도 오답도 없으니깐 편하게 읽어.

취향 한 번 까다롭네, 까탈로그

'사는(living) 재미가 없으면 사는(buying) 재미라도 있어야 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브랜드의 최신 뉴스나 신제품 출시 소식을 전한다. IT 기기를 비롯해 패션, 코스메틱, 숙소, 도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신제품과 인기 제품을 소개해줘서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유행과 트렌드를 빨리 접할 수 있다. 한 번의 뉴스레터에 10개 정도의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하는데, 비싸지만 예쁜 굿즈와 새로 나온 전자기기 등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아이템에 특화되어 있으며 까탈스럽게 고른 아이템들을 감상하다 보면 20대 젊은이들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한 바퀴 달리기

ISSUE

TIRE TECH

트렌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쫓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죠.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민하게 세상의 변화를 캐치해야 합니다.

넥센타이어 제80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지난 4월 29일, 더넥센유니버시티에서 넥센타이어의 제80주년 창립기념식이 열렸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양산공장, 창녕공장 등에서도 동시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 대표자 표창과 함께 이현중 사장의 기념사가 진행됐다.

이현중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넥센타이어가 지나온 오랜 기간 동안 숏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항상 힘쓰고 노력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회사로 성장해 올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여, 회사의 지난 80년 역사를 되돌아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준비와 실천으로 계속해서 성장해나가는 회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넥센타이어 넥스트레벨 골프데이’ 개최

지난 4월 25일, 넥센타이어가 고객을 초청해 개최한
‘넥센타이어 넥스트레벨 골프데이’ 현장을 가보자.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2’ 대회 우승자 유해란 선수와 단체 기념 촬영



넥센타이어 고객이
라운드 하는 장면

고객 초청 ‘골프데이’ 열고, 미디어 프로 선수 필드 레슨 진행

넥센타이어가 ‘넥센타이어 넥스트레벨 골프데이’를 통해 4월 21일부터 나흘
간 경남 김해시 가야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2’
대회 시합 코스를 직접 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프로 선수들이 사용했던 대회 환경을 그대로 유지, 대회장의 세팅 티
박스 및 빠른 그린 스피드 등 평소 경험해 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18홀 라운드를 하는 동안 미디어 프로 선수 동
반 레슨 기회도 마련해 라운드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또한, 각종 기념품 등
을 선물하는 등 차별화된 고객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한편 골프데이 행사에 앞서, 1일 전 호텔 숙박권을 제공하고 ‘넥센·세인트나
인 마스터즈 2022’ 대회 파이널 라운드에 고객을 갤러리로 초청해 우승자 유
해란 선수와 사진을 찍는 기회도 제공했다.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2 대회 우승자 유해란 선수

스포츠 마케팅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지속 마련

넥센타이어는 이번 ‘넥센타이어 넥스트레벨 골프데이’ 개최를 비롯해 앞으로
도 스포츠 마케팅과 연계한 고객 이벤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넥
센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골프데이를 통해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
고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 기뻐다”라며 “앞으로도 넥센타이어 고객들
을 위해 차별화되고 특별한 이벤트를 확대해 고객들이 보내준 성원에 보답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2013년부터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대회를 후원하
는데 이어 2020년도부터는 LPGA 홍예은 프로를 후원하는 등 국내외 골프
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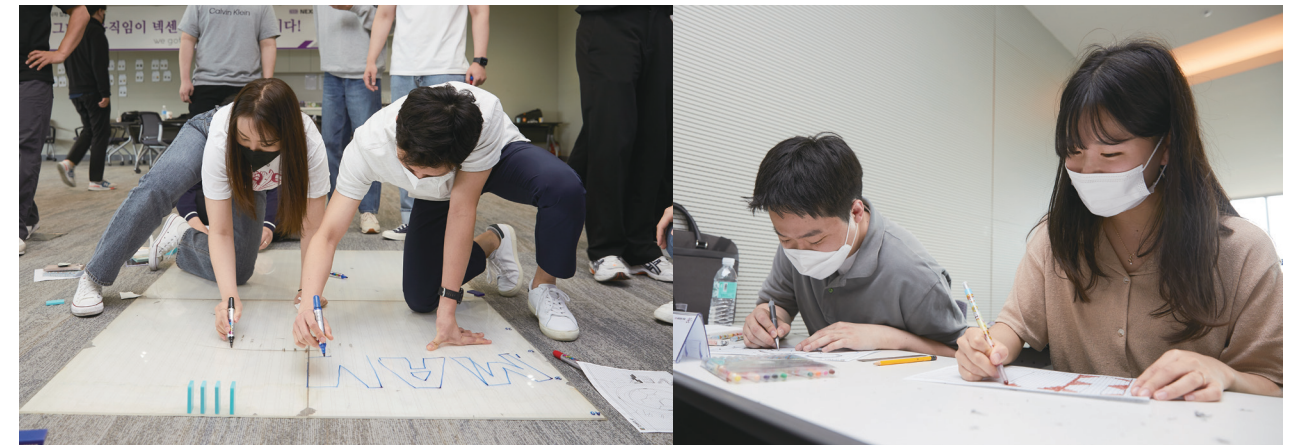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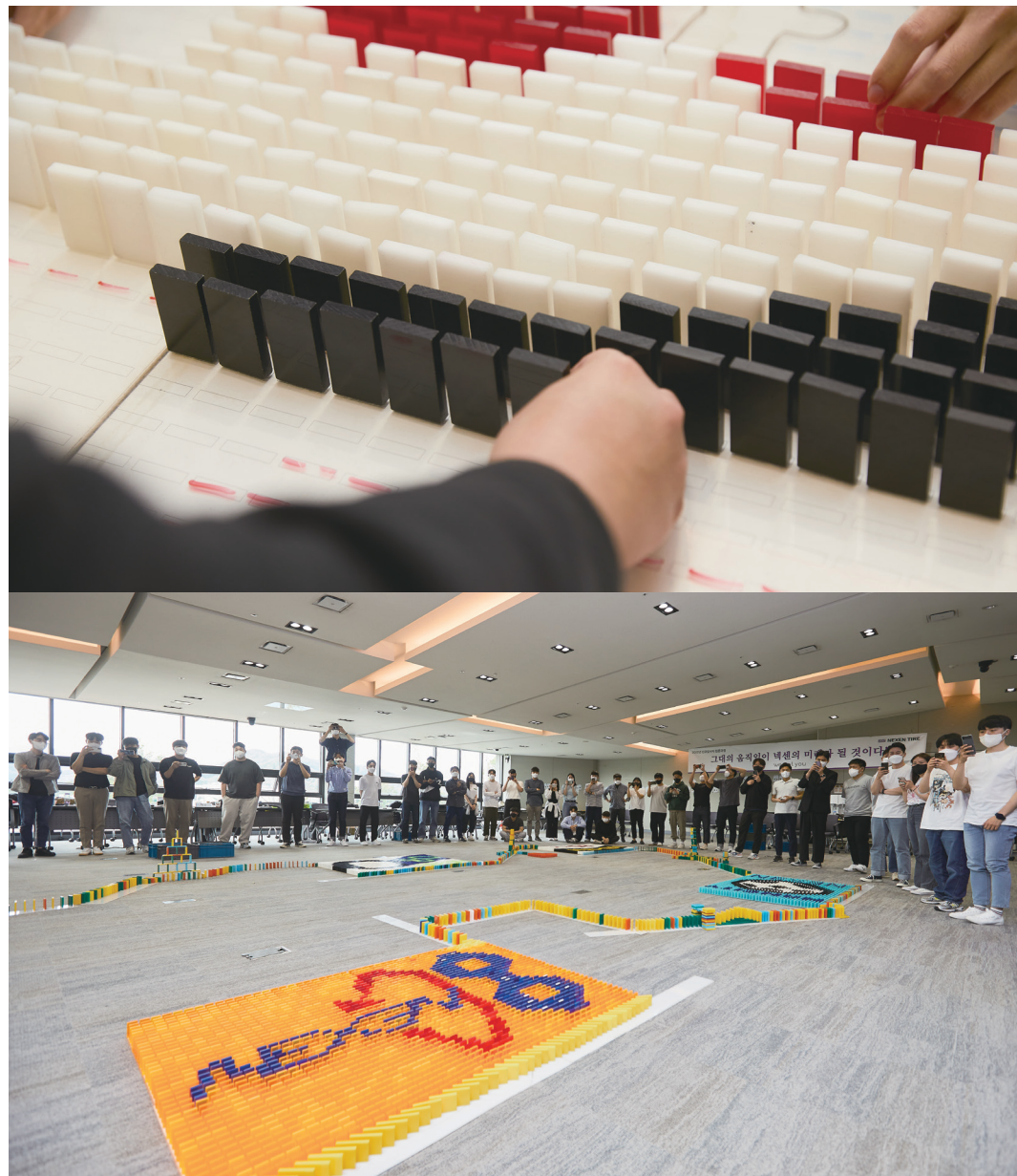
2022 넥센타이어 골든타이어 어워즈

넥센타이어는 매년 국내에서 넥센타이어 판매확대를 위해 노력한 대리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타이어 어워즈'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찾아 가는 시상식 행사로 진행하였으며, 아시아영업BG, 한국지역BS의 임원과 팀장, 대리점주분들이 함께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항상 넥센타이어 판매 확대를 위해 수고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내며, 영광의 주인공들을 소개한다.



미션! 넥센타이어 비전 도미노 쌓기

마지막 도미노 조각이 세워지자 10명의 팀원이 서로에게 무언의 눈짓을 보낸다. 입 밖으로 말을 내뱉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그렇게 다섯 팀이 한 시간 넘게 공들여 세운 만 개의 도미노가 쓰러지는 시간은 40초 남짓. 한바탕 꿈이라도 꾸 듯하다.



내일의 넥센을 함께 꿈꾸다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양평의 현대블룸비스타에서 넥센타이어 신규 입사자 입문과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날 아이스브레이킹과 둘째 날 도전 골든벨 행사를 거쳐, 셋째 날에는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나누어 '새로운 시작, 또다른 도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어서 4일차에는 '비전 도미노'를 진행, 참가자들의 화합과 성취감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 함께 집중하고 협동해야만 완수할 수 있는 팀 빌딩 활동을 통해 지난 3박 4일간 쌓은 팀 워크를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다.

팀당 9~11명의 총 5팀이 결성됐으며, 각 팀은 넥센타이어를 표현하기 위한 조별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지난 3일간 교육받은 넥센타이어의 역사와 비전, 경영 및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앞으로 넥센타이어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각자 참신하고 재미있게 구상하고 설계도에 옮겼다.

색색의 도미노 박스가 팀별로 지정된 자리로 옮겨지고 본격적인 집중력 싸움이 시작됐다. 한 팀당 세워야 하는 도미노의 개수는 전부 1,920개. 팀원들은 각자 역할에 맞춰 교대로 도미노를 세우고, 쓰러지면 복구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렇게 한 시간가량 후 E팀이 가장 먼저 도미노를 완성했다. 하늘색 바탕과 노란 트로피의 산뜻한 컬러 대미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서 10분 뒤에는 C, B, A팀이 연이어 도미노를 완성했다. 각 팀의 개성이 뚜렷한 도미노들은 행했던 강연장 바닥을 채웠다.

쓰러져도 다시 세우면 돼요

이제 마지막 남은 팀은 D팀. 한 시간 공들여 80% 이상 세운 도미노가 쓰러지는 참사가 발생했지만 팀원들은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집중, 30분 만에 도미노를 완성했다. D팀의 일원이었던 마케팅전략팀 최미진 책임은 “도미노가 크게 두 번 넘어졌지만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팀원들이 협동심을 발휘해 다시 쌓을 수 있어서 심적으로 힘들지는 않았다”라며 “거리두기 완화로 신규 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기쁘다. 이번 입문과정이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각 팀의 도미노를 연결하는 연결 도미노 세우기까지 완성되고, 모든 참가자가 5팀의 도미노를 둘러쌌다. “백센타이어 출발!”이라는 힘찬 구호와 함께 장난감 기차가 출발, A조를 시작으로 만 개의 차례대로 도미노가 쓰러지며 장관

을 연출했다. 각 팀의 도안이 선명해질 때마다 참가자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CP환경안전팀의 이승록 신입사원은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3년간 연수를 못했다고 들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인 신입사원 입문과정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오늘 도미노를 세우며 동기들과 서로를 알고 친해질 계기가 되어 너무 좋았다. 안전에 민감한 시기인데, 입사 후 모든 직원이 사고 없이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과 포부를 전했다.

이날 중간중간 도미노가 쓰러지는 일이 종종 발생했지만 누구 한 명 한숨을 내쉬거나 짜증 내는 이는 없었다. 박수와 “파이팅” 하는 응원만이 울려 퍼졌다. 이들 앞에 펼쳐질 길이 마냥 꽃길일 아닐지라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팀 비전 도미노를 소개합니다



A팀



B팀



C팀



D팀



E팀

A팀 상승하는 빨간 곡선처럼 우리 동기들이 하나 됨으로 더욱 비상하는 일류 백센을 표현했습니다.

B팀 휠이 있어야 타이어가 제대로 굴러가듯이, 백센타이어의 후원으로 좋은 경기를 펼치는 맨체스터 시티를 나타냈습니다.

C팀 백센타이어의 80주년을 기념해 임직원들의 열정을 빨간색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한 염원을 노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D팀 80년을 넘어 천년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로를 질주하는 백센타이어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E팀 포디엄과 트로피를 통해 세계 타이어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하는 목표를 형상화했습니다.

독일 ‘더 타이어 쉘른 2022’ 전시 참가



넥센타이어가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더 타이어 쉘른 2022’에 참가했다. 더 타이어 쉘른은 타이어, 휠, 자동차 부품 등 타이어 산업 관련 업체가 참가하는 글로벌 전시회다.

넥센타이어는 전기차용, 썸머, 윈터, 올시즌, 레이싱용 등 총 5개 카테고리에서 17개의 주력 제품을 전시했다. 특히, 유럽 환경에 최적화된 올시즌 타이어인 신제품 ‘엔블루 포시즌 2’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엔블루 포시즌 2’는 여름 빗길부터 겨울 철 눈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으로 ‘2022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포르쉐 ‘파나메라’에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 중인 ‘엔페라 스포츠’ 제품을 차량과 함께 전시해 기술력과 품질을 알렸다. 이와 함께, ‘EV Zone’을 구성하여 기아 전기차 ‘EV6’에 공급하고 있는 EV 전용 타이어 ‘엔페라 스포츠 EV’를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전시 부스에는 넥센타이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핵심 추구 가치인 Trendy, Innovative, Caring을 반영하고 브랜드 슬로건 ‘we got you’와 브랜드 컬러인 ‘넥센 퍼플’로 포인트를 주었다. 한편, 올해로 창립 80주년을 맞은 넥센타이어는 축적된 기술력과 더불어 ‘이동’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혁신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감사 메시지로 동료에게 마음을 전하는 ‘퍼플 포인트’



넥센타이어는 2022년 한해 ‘도전, 창 의 협력’의 조직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구성원 상호간의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1월부터 시행된 동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퍼플 포인트’를 소개한다. ‘퍼플 포인트’는 ‘칭찬’이라는 소재로 구성원 간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만들어졌다.

넥센타이어는 임원, 관리직 및 해외 주재원에게 월 1만 포인트, 연간 12만 포인트 지급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평소 감사를 표하고 싶은 대상에게 사내온라인 소통 공간인 NEMO 게시판을 통해 사연을 남기고 포인트를 선물한다. 누적된 선물 포인트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하다.

임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사연으로 하루에도 수십개의 사연과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평소에 동료에게 가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자 임직원들은 훈훈한 감동을 나누며 매우 만족하고 있다.

👍 베스트 칭찬글과 댓글을 소개합니다

해외OE개발1팀 양준호 팀장

주재원 복귀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쉽게 적응이 가능했던 것은 후배지만 앞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NETC 개발팀 신동혁 책임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덕분에 참 재미있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재원으로 떠나보내고 빈자리가 크리라 걱정했지만 후배 육성도 너무 잘 해주시고 가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항상 그랬었던 것처럼 열심히 기억에 남을만한 후회 없는 주재원 생활하시길 응원합니다.

➡ NETC 개발팀 신동혁 책임

많이 모자란 후배인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께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인생에 귀인을 댔 번 만났다면데, 팀장님께서 제 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NETC 개발팀 주원경 수석연구원

비록 지금은 다른 곳에서 서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함께 일할 때 감사했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웃는 얼굴로 맡은 바 최선을 다했던 한국OE개발팀 윤중현 선임연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후배님과 함께 일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님이 가진 열정과 긍정의 마인드가 우리 회사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한국OE개발팀 윤중현 선임연구원

저 또한 선배님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경험이 많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 임직원을 위한 퍼플포인트 이용 꿀팁

Purple Point. 1



우리 동료 참 잘했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임원, 팀장님들도 감사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소통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EMO #PURPLE POINT #THANK YOU
#소통해요

Purple Point. 2

매월 선물 포인트가 충전돼요

포인트 지급 기간 변경! 더 자주 칭찬해주세요~
분기 1회(30,000 포인트) 지급 되었던 포인트가
4월부터 월 1회(10,000포인트) 지급됩니다.

#MONTHLY #안쓰면 없어짐
#같은 달 맞춤형 안됨



Purple Point. 3



감사 메시지에 댓글도 달아 주세요

베스트 게시물, 베스트 댓글 선정 이벤트 진행!
칭찬 받으신 분들~ 칭찬글에 댓글로
감사의 표현 어떨까요?

#맞춤 #부상은 포인트 #공지 확인
#베댓은 타이밍

나도 엄마 아빠 따라 회사 갈래요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더백센유니버시티에서 '2022년 가족과 함께 1박 2일 캠핑' 행사가 열렸다.
톡톡 텐트 천장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까르르 잔디 위를 구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데 얹혀 더백센유니버시티를 가득 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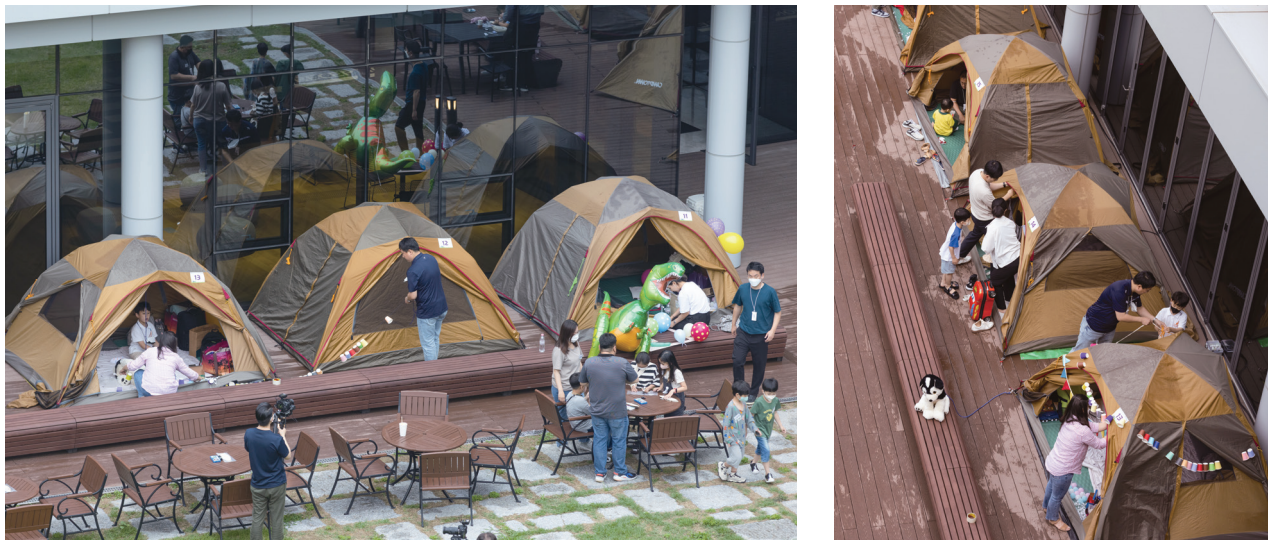
“여기가 정말 회사 맞아요?”

오후 3시, 평소라면 인적이 끊겨 적막했을 더백센유니버시티 식당이 왁자지껄 소란스럽다. 소란의 근원지는 70명 넘는 어른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인 현장. 각자의 테이블에 놓인 어른 손바닥만 한 타일을 열심히 색칠하느라 여념이 없다. 완성된 타일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푸른샘지역아동센터 벽화를 꾸미는데 전달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나눔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1박 2일간의 캠핑을 뜻깊게 보내고자 마련되었다.

‘2022년 가족과 함께 1박 2일 캠핑’ 행사에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선정된 총 20팀, 75명의 가족이 참여했다. NEW PLM PJT팀의 추성룡 선임연구원은 “회사 안에서 캠핑을 한다길래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신청했다. 아이가 아직은 어려서 의미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봉사활동도 할 수 있어 더욱 좋다”라며 아내 조은선 씨, 다섯 살 딸 다은이와 함께 타일을 열심히 칠했다.

한편 이날 벽화 타일 그리기에 앞서 가족들이 회사 전체를 둘러보는 CITY TOUR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1층 로비의 대형 아트월과 중앙계단, 라운지, 중정 등을 돌아다니며 연신 ‘우와’하고 감탄사를 내뱉는가 하면, 엄마 아빠가 일하는 사무실에 가서 책상에 앉아보고 주변 어른들께 인사를 하는 등 알차게 시간을 보냈다.

아들 예준이와 함께 참가한 국내영업팀 도소매파트 전병수 수석의 아내 이영재 씨는 “처음 사옥을 방문했는데 시설이 훌륭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너무 좋다. 아들도 아빠가 이런 데서 일하냐며 눈이 뚱그려졌다”라며 뿌듯한 마음을 전했다.



“행복한 우리 집 구경 오세요”

벽화 타일 그리기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어서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우리집 꾸미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크레파스, 사인펜 등 주취 측에서 제공한 문패 꾸미기 재료 외에 각종 풍선과 가랜드 등 각자 준비해온 온갖 데커레이션 용품들이 테이블 위에 쏟아져 나왔다. 물론 텐트 꾸미기는 엄마 아빠의 몫. 아이들은 그저 잔디에서 친구들과랑 뛰어노느라 바쁘다.

커다란 초록색 공룡 풍선으로 모두의 시선을 강탈한 전락기획팀 신우진 책임은 큰 딸 하윤이의 도움으로 텐트를 꾸몄다. “아들 원재가 공룡을 좋아해서 공룡의 집으로 콘셉트를 잡았는데, 정작 원재는 N젤 어린이집 동기들이랑 노느라 안중에도 없다. 아이들과 캠핑을 가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더 열심히 준비했다”라며 가장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

특성연구팀 국민구 수석 가족은 ‘6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콘셉트로 텐트를 단장했다. “애들이 더 자라기 전에 아빠 회사에 데려오고 싶었고 또 한 동안 캠핑을 다니지 못해 아쉬웠는데, 좋은 기회다 싶어 신청했는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앞으로 가족과 더 많이 추억을 쌓아야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캠핑은 텐트 꾸미기 이후에도 피자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영화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채워졌다. 그리고 톡톡 내리는 빗방울을 자장가 삼아 모든 가족이 달콤한 잠에 들고 나서야 더백센유니버시티의 가나긴 하루도 마무리되었다.



넥센타이어와의 동반성장을 꿈꾸며

타이어테크
양산점



넥센타이어의 공장, 양산에 지난 4월 타이어테크 신규 매장이 오픈했다. 양산공장에서 양산천을 따라 3km쯤 내려가다 보면 단연 눈에 띄는 타이어 빗살 무늬 외관의 2층짜리 건물이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타이어테크 양산점이다.



2개월 차 신임 점장 겸

12년 차 타이어 전문가

이제 오픈 2개월 차, 깔끔한 매장 못지않게 새로운 시작의 설렘과 청량이 말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주인공은 양산점을 도맡고 있는 최우식 점장이다.

“지난 12년간 타이어 대리점에서 근무했습니다. 넥센타이어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꾸준히 출시하고, 찾아가는 타이어 교체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고객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에 대리점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최우식 점장은 양산점을 오픈하기 전 넥스트 레벨 GO 서비스 매니저로 일한 경험도 있다. 그때 넥센타이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쌓으며 더욱 확신을 가졌다.

양산점은 넥센타이어 양산공장이 위치한 산업단지 와 가까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산업단지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을 주요 고객으로 타깃 삼고 있다.

“하천 건너편은 큰 도로가 있어서 유동인구도 많고 타이어 대리점도 여러 군데 있어요. 하지만 이쪽 편은 저희가 유일해요. 좁은 도로이지만 고정 인원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두 번 이상은 지나는 길목이죠. 그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목표입니다.”

아직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단골 고객도 생기고 있다. 양산점을 찾아주는 고마운 고객들을 위해 최우식 점장은 워셔액 보충, 차량 내부 향균/탈취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좋은 가격에 선보이는 것을 최고의 전략으로 내세운다.

“서비스는 말 그대로 부가적인 부분이고 기본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족할 만한 가격에 제공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손에 주어지는 이익보다 고객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양산공장 덕분에 브랜드 자체 호감도가 높은 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점의 베테랑 노트

① 12년 베테랑의 꼼꼼한 서비스

오랜 기간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타이어 공택, 휠 세척, 공기압 보충 등 타이어 관련 서비스는 기본이고 차량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살펴 워셔액 보충, 차량 내부 소독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② 친절한 미소와 밝고 깨끗한 매장

아름다운 사람은 머무는 자리도 아름답다고 하지 않은가. 친절하고 밝은 미소를 가진 최우식 점장이 머무는 자리답게 매장도 밝고 깨끗하다. 고객을 최접점에서 맞이하는 자신과 양산점 매장이 곧 넥센타이어라는 생각에 열심히 치우고 가꾼 노력의 결과다.



세심한 배려와 친절한 응대를 바탕으로

최우식 점장은 아직 대리점을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는 2개월 차 신입 점장이지만 배포는 크게 폼고 있다.

“2~3년 안에 양산에 있는 타이어테크 대리점 중에서 1등 매장이 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매장 운영하고 진단지를 돌리면서 온라인 홍보도 하고 있는데, 많이 바빠져서 여러 사람과 함께 꾸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려고요.”

양산점의 매장 운영시간은 오전 8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다. 출퇴근하는 고객들의 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닫는 것이다. 이렇듯 고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양산점을 다시 찾게 하는 비결이다. 물론 친절함 응대는 기본이다.

“저희 매장을 찾으시는 분은 누구라도 웃는 얼굴로 문을 나섰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늘 웃는 얼굴로 고객들을 맞이하고 매장을 밝고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매장을 방문하신 분 중에 친절하다거나 서비스가 좋다며 주변에 소개해 주시겠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정도면 첫 단추를 잘 꿰어가고 있는 게 맞겠죠?”

가격, 서비스, 친절을 장착하고 넥센타이어와의 동반성장이라는 기나긴 레이스에서 이제 막 출발선에 오른 양산점. 앞으로의 도약과 힘찬 질주를 응원한다.

타이어테크 양산점

📍 경남 양산시 교동4길
☎ 055-381-5989



한 바퀴 어울리기

Color of NEXEN

넥센 알고리즘

NEXEN CSR

필환경 로드

다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트렌드는 문화로 발전합니다.
문화적 소스가 다양하고 풍부할수록 새롭고 창의적인 트렌드가 다시 생겨나고
세상은 더 다채롭게 변할 것입니다.

Color of

엔페라 레이싱팀 레이싱 카

나만의 색으로 넥센을 물들이는 세 번째 컬러링의 주인공은 넥센타이어 '엔페라 레이싱팀'의 레이싱 카이다.
트랙을 질주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디테일을 멋지게 살린 작품을 공개한다.

NEX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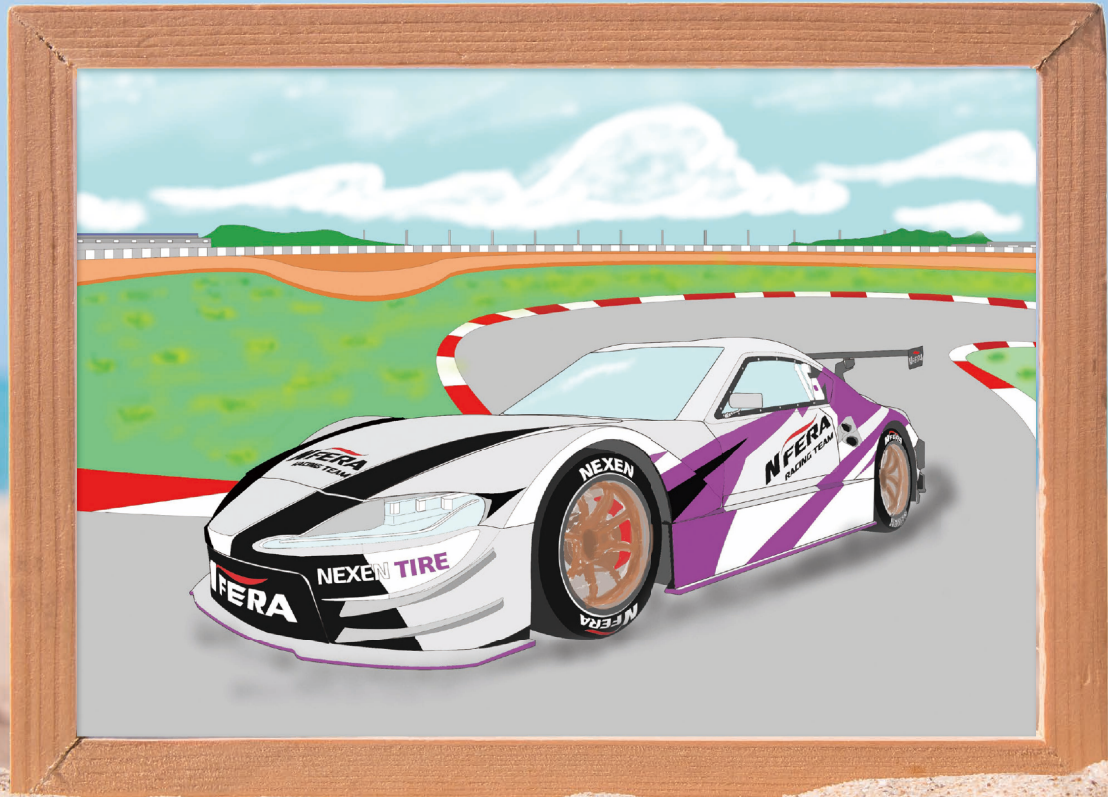
김성훈 책임
윤리경영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6살 딸아이의 작품입니다.
아직 어려서 그림 솜씨는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사랑스럽네요. 오히려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달리는 레이싱 카를 상상하며 더위를 날려보세요.
하시는 일도 모두 쾌속 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수 책임연구원

실차평가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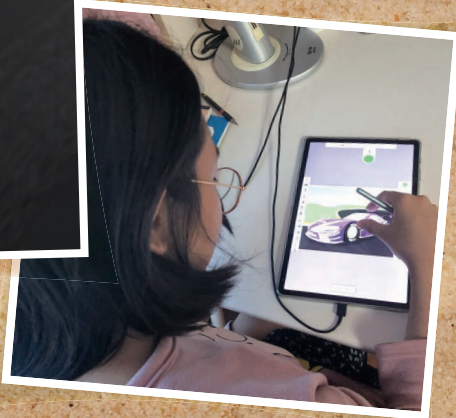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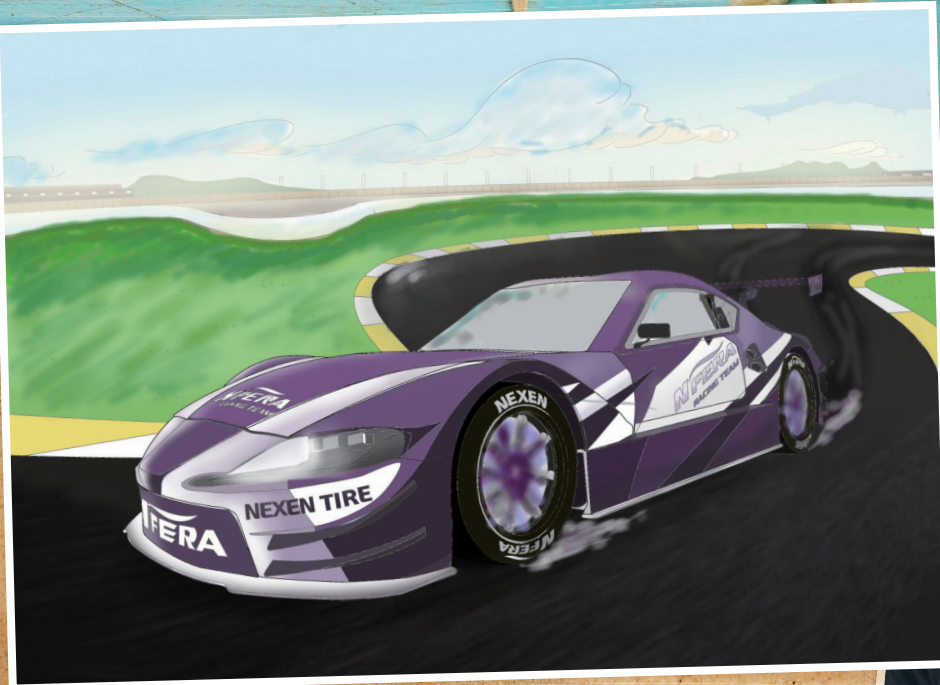
엔페라 레이싱팀 레이싱 카를 이렇게 컬러링 해보니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최대한 실물과의 싱크로율을 높이기 위해 도안을 확대해서 로고도 열심히 칠했습니다. 다하고 보니 은근 뿌듯하네요. 그림 속 몽게구름 피어난 파란 하늘을 보니 멋진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이희석 파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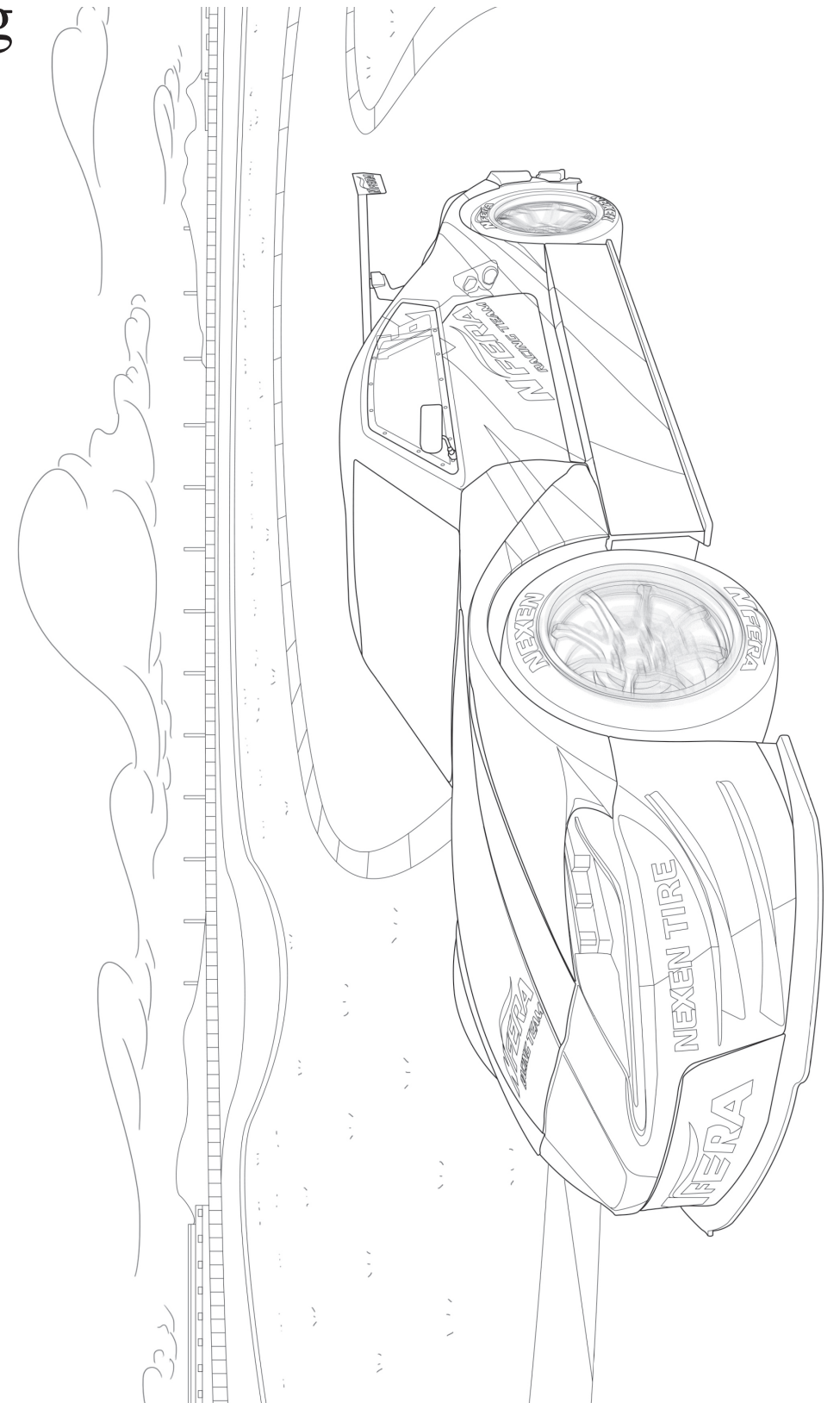
(YP)설비보전파트

삼 남매의 콜라보로 탄생한 그림입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둘째 딸이 먼저 전체 배경색을 입히고 첫째 딸이 덧칠로 음영을 더한 후에 막내아들과 제가 같이 선을 그려 넣어 역동성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타이어 휠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속도감이 느껴지시나요?



Self-Coloring Page

독자 여러분도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넥센타이어 엔페라 레이싱팀의 레이싱 카를 색칠해 보세요.



이거 왜 아직 안씀?

넥센인이 엄선한 혼자 쓰기 아까운 앱



두 눈을 감았다 뜨면 변화하는 세상에서 때로는 누군가가 나만을 위한 맞춤 정보를
골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똑 소리 나는 넥센인들이 나만 알기엔 아깝다며,
모두의 스마트한 일상을 위한 앱을 공개했다.



시티즈코난 & 피싱아이즈

보이스피싱, 사전에 차단!

신상훈 파트장 창업영업소

작년 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68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
을 아시나요? 전화는 물론 메신저를 이용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수법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대선 여론조사 등 많은 사람
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를 이용하는 등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만든 '시티즈코난'은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깔린 악성 앱을
찾아 삭제해 주는 보안 앱입니다. 실제로 이용자들이 이 앱을 통해 6,468
건의 악성 앱을 탐지했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검사 버튼을 누르면 몇 초
만에 결과가 나오니 모두들 검사 한 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피싱아이즈' 역시 경찰청에서 만든 앱으로, 시티즈코난의 업그레이드 버
전입니다. 각 금융사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문자나 메
신저 메시지, 통화 내용에서 피싱으로 의심되는 키워드를 발견하는 즉시
인공지능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 사용자의
주거래 은행에 정보를 전달해 이체 및 대출 승인을 막아줍니다.



티머니GO

대중교통 타고 마일리지도 쌓고

김효석 사원 인재개발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넥센인들은 집중! '티머니GO'는 교통카드
제조회사인 티머니에서 출시한 앱입니다. 지하철, 시내버스 탑승은 물론
고속시외버스 예매, 택시 호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인 '따릉이'와
공유 킥보드인 썬썬 등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도 티머니GO를 통해 쉽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바로 탈수록 이득이 되는 마일리지입니다. 티머
니 교통카드나 자주 이용하는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고 주 3일이상 대
중교통 혹은 따릉이 이용 시 자동 적립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로는 고속시
외버스 예매, 택시 결제, 따릉이 이용권 구매 등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으로 출퇴근하시는 넥센 가족 모두 알뜰하게 마일리지를 챙기면서 효율
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Notion

내 손안의 작지만 강한 비서

이지혜 책임 전략기획팀

'Notion'은 뻗속까지 ENFJ이자 계획·기록 덕후인 저의 모든 걸 관리해 주
는 비서같은 앱입니다. 이미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아 회사 업무 협업 톨
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요즘 최고 핫한 앱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년간 다이어리를 손으로 직접 작성해왔는데 편리함과 이동성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수정, 저장, 동기화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일정 관리 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앱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이 앱을 접한 이후 현
재까지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에버노트에 원노트, 블로그, 엑셀 등의
기능을 전부 합친 전천후 앱입니다.
Notion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것도 없는 하얀 도화지에 내가 구상하는 대
로 페이지들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알면 알수록 욕심이
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지금도 꾸준히 계
스터디 중입니다. 기록, 일정관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스스로 지키는 나의 안전

임정희 책임 SCM팀

일상에서 겪는 이런저런 불편함을 어디에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고, 얘기
해도 '뭐가 바뀌겠어?'라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치는 일이 종종 있으실 텐
데요, 생활 속 불편/안전 위협요인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보세
요! 사진·동영상을 찍어 발생 지역과 간략한 요청 내용을 기입하면 접수
완료! 참~ 쉽죠? 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 공사장 위험, 불법주차, 교통
위반 기타 안전제안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접수하면 담당기관 및 부서로
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놀이터 내 자
전거 출입금지 요청'을 접수했었는데, 놀이터 출입구에 안내문이 설치되
는 등 잘 조치되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빠
르게 조치되지는 않지만 답변 등록 등을 문자로 알려주거 때문에 조치 결
과를 잊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과를 직접 확인하시면, 나
름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기여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답니다!

NEXEN CSR

2022년 승진자와 함께한 '사랑의 자전거 만들기'



넥센타이어는 2022년 정기 승진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사랑의 자전거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자전거를 같이 조립하고 검수, 완성하면서 승진을 통해 얻은 긍정의 마음가짐을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나누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자전거 구동 원리와 구성요소를 배우고 자전거 조립과 더불어 팀별 소통, 협력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자전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간 자연스러운 상호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동료와 함께 자전거를 조립하고 기부하는 과정이 의미 있었다는 참여 직원들의 후기가 들린다.

직원들이 조립한 자전거는 신길 사회복지관으로 전달되어 자전거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우리가 쓰고 버린 물은 다시 돌아온다 돌고 도는 물의 여정

우리는 하루 208ℓ의 물을 사용한다. 쓸 수 있는 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늘고 기후변화로 인해 깨끗한 물은 줄고 있다. 다른 자원에 비해 사용료가 저렴하고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의 유한성에 무뎌진다. 우리가 쓰고 버린 물은 어떻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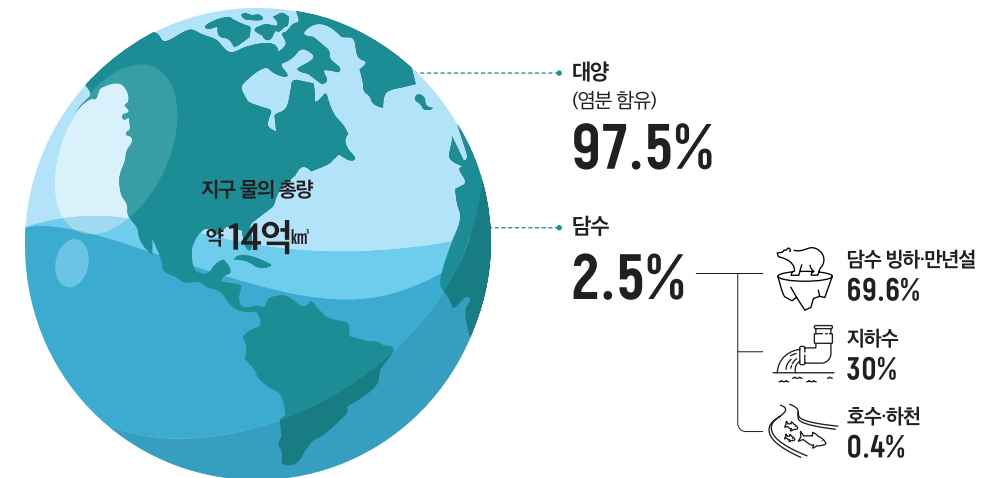
한정된 자원, 물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은 약 14억㎥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바다로, 소금기가 있어 사용할 수 없다. 나머지는 담수인데, 그중에서도 69.6%는 빙하와 만년설이고 나머지 30%는 지하수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호수나 하천의 물은 전체 담수 중 0.4%에 불과하다. 따

라서 인간이 수자원으로 사용할 있는 물은 지구 전체의 1%도 채 안 되는 것이다. 지구의 물은 하늘과 땅, 지하와 바다를 돌기 때문에 1%도 안 되는 물이지만 줄지 않는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지구의 물 순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 수증기 함량, 강수 패턴, 강수 강도를 변화시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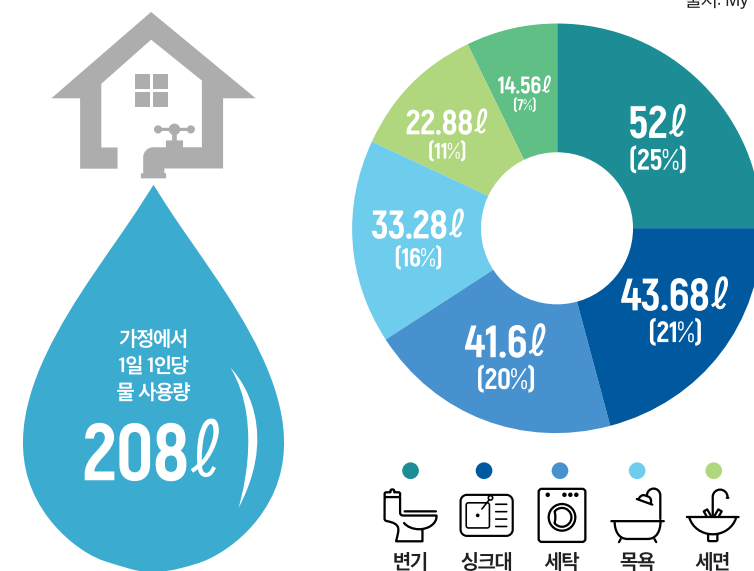
극지방의 빙하도 녹이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 변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뭄을 비롯한 각종 재해의 빈번한 발생이다. 이런 변화는 인류를 비롯해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물을 '한정된 자원'으로 인식하고 물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지구상 물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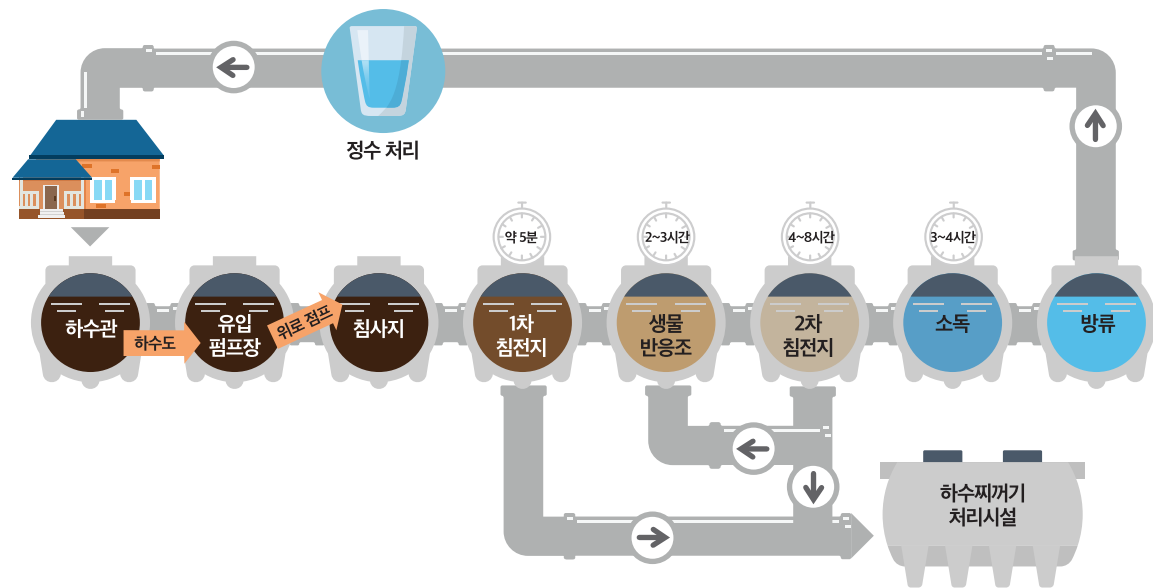


1인당 하루 물 사용량 (2019년 기준)

출처: My Water 물정보포털



오염된 물이 강으로 나가기까지, 하수처리 과정



우리가 쓰고 버린 물,
어떻게 다시 돌아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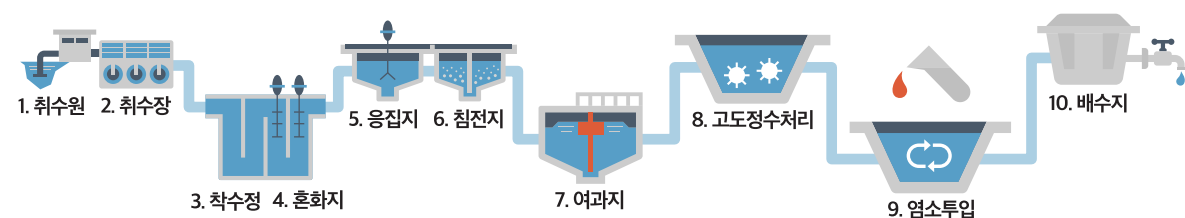
우리가 사용하고 난 뒤 버린 물과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하수관을 따라 지하 깊은 곳에 모이면 유입 펌프장에서 하수처리장으로 퍼 올린다. 하수처리장으로 올라온 물은 침사지에서 무거운 모래나 돌 등을 가라앉히고 커다란 쓰레기를 거른다. 1차 침전지로 이동해 하수가 머무르는 동안 무거운 찌꺼기는 아래로, 물은 위쪽으로 분리되고 아래로 가라앉은 찌꺼기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로 이동한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에서는 찌꺼기

만 모아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새로운 에너지로 사용한다. 분리된 물은 생물 반응조에서 미생물을 활용해 하수 속에 섞여 있는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깨끗해진 물은 2차 침전지로 이동해 약품으로 하수찌꺼기를 무겁게 만들어 다시 가라앉힌다. 모든 침전물을 제거한 물은 대장균 등 세균을 소독하고 냄새를 제거한 뒤 방류구를 따라 강으로 가거나 정수처리를 거쳐 가정으로 간다.

각 도시의 수도물은 강물을 사용한다. 상변에 위치한 취수장에서 강물을 끌어들이어 정수센터로 보낸다. 착수정에서 정수처리를 위해

물의 양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오염 물질에 흡착하는 분말활성탄을 투입한다. 혼화지로 이동해 적정량의 정수처리 약품을 넣고 섞은 뒤 응집지로 향한다. 약품에 의해 미세한 입자들이 큰 덩어리로 뭉쳐지면 침전지에서 큰 덩어리는 가라앉고 맑은 윗물만 여과지로 보내진다. 여과지로 이동한 물은 모래와 자갈층을 통과하며 물속에 남아 있던 작은 입자들까지 깨끗하게 거른다. 고도정수처리에서 오존과 활성탄으로 안전하게 정화된다. 마지막으로 물에 염소를 넣고 소독해 위생적이고 안전한진 수도물은 각 가정으로 공급된다.

강물이 우리 집으로 오기까지, 정수처리 과정



티끌 모아 태산!
물 아끼기 실천 방법

빗물 저금통 이용하기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물질질을 거른 뒤 덮개가 있는 저장조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배수펌프로 물을 빼 사용하는 시설이다. 빗물을 모아 텃밭에 화단 조경용수, 마당 청소용수, 소방용수, 화장실 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물 사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하수도의 부하를 덜고 수질 오염 방지, 열섬 현상* 완화까지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도시지의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지는 현상



물은 받아서 사용하기

설거지할 때 설거지통에 물을 담아 그릇을 불리고 행구면 물을 약 60% 절약할 수 있다. 양치할 때 입을 행구는 동안 물을 계속 틀어 놓으면 약 36ℓ 사용되지만, 컵을 사용하면 1ℓ 이하만 소모된다.

절수 설비 또는
절수 기기 설치하기

싱크대, 화장실 등의 수전 교체 시 절수 설비를 설치한다. 샤워헤드, 세면대, 양변기에는 설치가 간편한 절수 기기를 장착한다. 용도에 맞게 수압을 조절해서 사용하고 샤워 시간을 단 2분 줄이는 것만으로도 회당 24ℓ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세탁기 사용 횟수 줄이기

세탁기는 용량과 수위를 알맞게 조절해 사용한다. 기준 용량보다 작다면 빨랫감을 모아 한 번에 세탁한다. 세탁기에 설정된 행굼 횟수보다 많이 행굼 필요가 없으며 행굼은 한차례로도 충분하다. 세탁기의 마지막 행굼 물은 비교적 깨끗하므로 양동이에 받아 걸레를 빨거나 변기의 물탱크에 붓거나 베란다 청소 등 허드렛물로 재이용하면 좋다.



한 바퀴 쉬기

미래참견시점

트렌드가 뒤틀리오

마음처방전

별별 스포츠

NEWS

함께해요!

새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유산을 현재의 시선으로 얼마나 창의적으로 해석해느냐에 따라
또 다른 새로움의 원천이 됩니다.

하늘 길을 날아서 이동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

꽤 막힌 도로 위를 빠르게 날아가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의 시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아직 해결해야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기존 항공 업체들,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 여러 스타트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UAM의 빠른 진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포화된 도로와 자동차를 넘어서,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어 줄 UAM에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다.

UAM

Urban Air Mobility

UAM, 하늘 길을 난다

꽤 막힌 도심과 답답한 도로 위의 자동차가 아닌 하늘 길을 나는 UAM을 이용한다면, 도심에서 이동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거대 도시화의 흐름, 대형 빌딩,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UAM은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 빌딩과 빌딩을 오가면서 도심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도와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위를 날아가는 UAM을 위해서는 안전성 이슈와 함께 친환경, 저소음, 수직이착륙의 구현이 필수적이다. 친환경을 위해서는 전기배터리나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여 친환경 이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소음으로 설계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좁은 도시 공간을 위해서 수직이착륙의 구현도 필수적이다.

많은 업체들이 UAM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기체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수직이착륙을 구현하면서, 효과적인 비행이 가능



수직이착륙과 수평비행을 고려한 (위)조비 에비에이션과 (아래)릴리움의 UAM ©조비 에비에이션, 릴리움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고 부르는 4개의 날개를 가진 쿼드콥터는 수직이착륙에 매우 유리하다. 다만, 효과적인 비행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 때문에 주요 UAM 업체들은 수직이착륙과 수평비행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기체 설계에 노력하고 있다.

UAM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은 수직이륙 후에 전면 프로펠러를 일정 각도로 움직여서 수평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릴리움은 추진 부가 돌아가도록 설계하여 수직이착륙과 수평비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연구원도 수직 프로펠러와 수평 프로펠러를 모두 가진 기체를 설계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OPPAV ©항공우주연구원



CityAirbus NextGen



에어버스의 시티에어버스 넥스트젠 ©에어버스

새로운 미래 먹거리 향한 다양한 도전

현재 UAM 시장에는 기존 항공 업체와 함께 자동차사, 스타트업 등 여러 산업의 업체들이 뛰어 들고 있다. 보잉, 에어버스, 유나이티드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은 UAM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잉은 키티호크와 합작하여 위스크에어로(Wisk Aero)를 설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위스크에어로에 약 5,4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에어버스는 4인승 UAM인 시티에어버스 넥스트젠(CityAirbus NextGen)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스타트업 아처에 15억 달러를 투자하여 300대의 기체를 선주문한 상태이다.

현대, 토요타, 벤츠와 같은 주요 자동차제조사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CES 2020에서 UAM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율주행셔틀과 UAM을 묶은 도시 모빌리티 서비스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UAM 사업부를 신설하고 나사의 관련 전문가를 영입한 현대자동차는 2025년을 목표로 관련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토요타는 미국의 조비 예비에이션에 약 4,600억 원을 투자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는 2017년부터 볼로콥터에 투자하면서 UAM 시장을 대비하고 있다. UAM 관련 주요 스타트업으로는 조비, 릴리움, 이항, 아처 등이 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21년 12월 미국의 UAM 스타트업 안라(ANRA)에 투자하기도 했다. 안라는 UAM을 위한 하늘 길의 설계 및 관리, UAM의 교통 관제, 드론 배송 등을 개발하는 업체이다. 안라는 UAM의 교통 관제탑 역할을 하는 무인항공기 교통관리 시스템(UTM, Unmann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을 EASA(유럽항공안전청) 프로젝트에 공급하기도 했다.

UAM과 자율주행셔틀 기반의 미래 스마트시티 비전 ©현대자동차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에 총 51개 업체들이 지원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컨소시엄 6곳과 단일기업 6곳이 지원했다. 현대-KT, 한화시스템-SKT, 파블로항공-LG윙플러스-카카오, 롯데-민트에어, 대우건설-캔코아-휴맥스, GS ITM-다보이엔씨-볼트라인-안단테 등 다양한 업체들이 연합한 6개 컨소시엄이 지원했다. 이처럼 UAM 시장은 여러 산업에서 투자하는 미래 먹거리가 되고 있다. 항공 측면의 안전, 자동차 측면의 대량 생산, 건설 측면의 주차장 등 다양한 산업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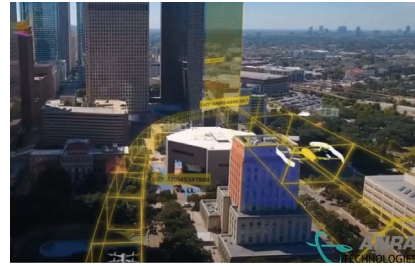
UAM 상용화를 위한 향후 전망과 과제

2022년 6월 현재, 대표적인 UAM 스타트업인 조비, 릴리움, 이항의 주가 최고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현재 주요 업체들이 아직 기체를 개발 중이거나, 인증을 진행 중인 수준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까지는 아직 먼 게 사실이다. 가장 빨리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 조비 예비에이션이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체를 안정화하고, 인증을 진행하고, 여러 대의 실증을 진행하여 시장

에 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도심에서 빌딩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안전한 헬기나 경비행기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헬기나 경비행기 시장을 안전하고 조용한 UAM으로 대체하면서 부가적인 서비스 시장을 찾아가는 단계이다. 중기적으로는 도심 비행의 안전성이 충분히 증명될 때까지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운행하면서 도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강을 따라서 운행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심 곳곳의 빌딩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면서 자율주행차와 연계하여 도심 교통 시스템을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AM의 상용화에는 여러 산업의 융합과 협력, 법제도적인 노력, 긴 실증기간 등 다양한 측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측면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UAM 관련 시장을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안라의 하늘 길과 UAM 교통 관리 시스템 ©안라

UAM



2022년 대한민국, Y2K 감성에 빠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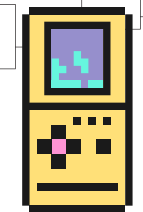
Y2K

2022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골반바지가 20년 만에 로우 라이즈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다. MZ 세대 핫플레이스인 연남동과 성수동에는 즉석 사진을 찍고 인화하려는 20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Y2K 감성에 빠진 2022년 대한민국을 들여다본다.

M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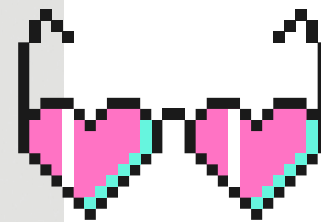
©선미 인스타그램



©제니 인스타그램



Y2K 콘셉트의
아이돌 스타일링



배꼽티에 골반바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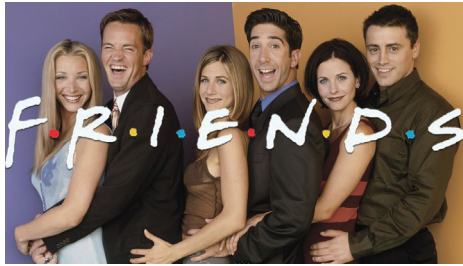
2022년 패션 트렌드 중 단연 눈에 띄는 건 바지나 치마를 골반에 걸치는 로우 라이즈(Low rise)다. 20년 전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효리, 보아 등이 입으며 인기를 끌었던 아이템이 부활한 것이다. 벨라 하디드, 캔달 제너 같은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입기 시작해서 슬슬 인기를 끌더니 패션 브랜드 미우미우가 로우 라이즈 미니스커트를 선보이며 트렌드를 선도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가로수길에서 영턱스클럽, 듀스 등 세기말 가수의 패션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로우 라이즈 외에도 배꼽을 드러내는 크롭 티, 펄퍼짐한 와이드 팬츠, 통굽 신발 등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인기를 끌었던 패션 아이템이 다시 부상하며 MZ 세대 사이에서 Y2K 패션이 주목받고 있다.

Y2K란 'Year 2000'의 줄임말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세기가 바뀌며 컴퓨터 오류가 발생해 세상이 종말한다는 뜻의 '밀레니엄 버그'를 일컫는다. 불안과 희망이 교차했던 세기말, 세기초의 혼돈은 당시 문화와 패션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당시 20대들은 과감하고 개성 강한 스타일의 패션으로 당당하게 자아를 표현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2022년 대한민국은 Y2K 패션의 영향으로 흰 상의와 검정 하의를 조합한 무채색 모나미룩 대신 화려한 컬러와 패턴의 티셔츠, 골반까지 내려오는 하의, 굵고 화려한 액세서리 등 다소 유치하지만 과감한 아이템들로 점점 채워지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지우고 싶은 촌스러운 과거의 패션이 최근 몇 년 사이 트렌드로 다시 떠오른 현상에 대해 패션의 유행이 20년 주기로 반복된다는 법칙에 따라 자연스레 타이밍이 도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고립되고 제한된 삶을 산 Z세대들이 어린 시절에 지켜본 화려하고 쾌활한 당시의 분위기를 좇으려 한다는 해석,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MZ 세대의 특성과 맞아 떨어져 재탄생한 것이라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프렌즈



오분순삭 - 거침없이 하이킥

Y2K <<< N >>> MZ



세기말&세기초 문화와 놀이에 빠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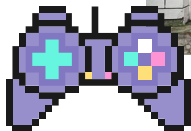
세기말, 세기초 문화에 대한 선망은 패션뿐 아니라 MZ 세대가 소비하는 미디어 콘텐츠에서도 드러난다.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90년대 바이브'를 표방한 케이팝 음악이 나오고 있으며, OTT에는 1999년에 방영된 미드 <프렌즈>가 전편 스트리밍되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각 방송사들이 2000년대 초 음악방송인 <가요톱텐>, <인기가요>를 스트리밍해 '탑골공원'을 히트시킨 이후 과거 인기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을 짧게 편집한 '오분순삭' 같은 채널을 운영해 90년대 방영했던 드라마, 예능, 만화 영화 등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순풍산부인과> 등 당대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인기 시트콤을 10분 내외로 짧게 편집한 영상들은 고정 팬을 확보하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추억의 오락실도 MZ 세대가 빠진 세기말 문화 중 하나다. PC방과 게임방의 등장으로 급격히 인기가 시들며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인 아날로그 전자오락실이 새로운 놀이터가 되고 있다. 주민 크라우드 펀딩으로 다시 부활한 서울 서촌의 마지막 오락실은 향수에 젖은 중장년층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찾는 명소가 되었고 인기에 힘입어 용산 남영동, 해방촌, 종로 익선동 등 핫플레이스에서 '콤콤오락실'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레트로 오락실의 인기에 LG전자는 지난해 히스터들의 핫플레이스인 서울 성수동에 이어 올해 4월 부산 광안리에 제품 홍보를 위한 팝업스토어 '금성오락실 시즌2'를 오픈했다. 철권, 테트리스, 보글보글, 크레이지 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등 추억의 게임과 피카츄 돈가스, 라면땅 등을 선보이며 MZ 세대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금성오락실



콤콤오락실



소중한 추억을 기념하고 간직하는 방법

필름 카메라와 즉석 카메라의 인기도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게 더 익숙한 MZ 세대들이 사진을 인화하고 앨범을 만들어 보관하는 아날로그 감성에 빠진 것이다. 폴라로이드 즉석카메라 브랜드 '인스타크스' 2020년 매출은 전년대비 30% 늘었고 미니11모델은 출시 한 달 반 만에 7000대를 판매하기도 했다.

디지털카메라의 등장으로 인기가 시들해진 필름카메라의 인기도 다시 높아졌다. 서울 연남동의 '연남필름'에는 사진 인화를 위해 필름카메라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필름을 사서 끼우고 한 컷 한 컷 심혈을 기울여 찍은 다음 현상하는 과정 자체가 MZ 세대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버튼을 마구 누른 뒤 액정으로 보고 가장 잘 나온 한 컷을 골라 인위적으로 보정하는 대신 호흡을 가다듬으며 온 신경을 집중해 순간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것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

셀프 포토 부스도 인기다. 10여 년 전까지 유행하던 스티커 사진 기계와 다른 점은 글씨를 쓰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꾸미기'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포즈와 표정을 다양하게 연출해 찍은 네 컷을 사진 한 장에 담아 즉석에서 인화한다. 셀프 사진 부스의 대표 브랜드 '인생네컷'의 주 이용자는 10대가 50%, 20대가 40%다. 이들은 사진을 찍고 인화해 앨범에 차곡차곡 모으며 친구들과의 만남을 기념하거나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다.

같은 선상에서 셀프 스튜디오도 인기를 끌고 있다. 증명사진이나 가족사진 촬영 등을 위해 큰맘 먹고 찾던 사진관이 가볍게 추억을 남기기 위해 찾은 곳으로 바뀌었다. 뻘하고 경직된 포즈 대신 자연스럽게 여유로운 포즈를 취한 뒤, 전문 사진기사가 아닌 스스로 카메라 셔터를 눌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담아낸다.

음악을 즐기는 방법도 달라졌다.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TOP 100을 듣는 대신 자신의 취향을 찾아 LP 바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LP 판매 바늘이 닿았을 때 나는 우음 소리마저 낭만적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오래된 LP 가게들이 다시금 힙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고 전축 같은 빈티지한 기기는 없어서 못 살 정도를 인기를 끌고 있다. 오래된 스피커도 마찬가지다. 성수동의 핫한 LP 바에는 그 시절 노래에 매료된 MZ 세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유행이나 트렌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우리 곁에 존재해왔던 존재들이 새로운 시선과 신선한 기준에 의해 참신하게 해석되어 또다른 가치를 찾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22년의 Y2K 열풍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인생네컷

더운 여름날, 피서 중 하나가 독서라고 하죠. 잠 못 이루는 열대야에 더위를 잊게 해 줄 책이 있다면 계속 책에 손이 가겠지요. 자극적인 책도 있겠지만 나 자신을 탐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인문학 책은 우리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인문학책들이 어려워 읽기가 힘들다고요? 인문학 책은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책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 중 천천히 내 스타일에 맞는 인문학 책을 골라보세요.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의 인생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의 인생만 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야.”

1 허구의 삶

이금이 지음, 문학동네 펴냄,
2021. 2. 26

등단한 지 30년 된 이금이 작가는 등단 후 한 번도 쉬지 않고 글을 써왔다. 〈알로하, 나의 엄마들〉(창비) 이후 나온 이 작품은 퇴고에만 수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 작품에는 부모도 없이 외삼촌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상만이와 서울에서 제천으로 이사 온 과수원집 아들 허구가 나온다. 항상 외숙모 눈칫밥을 먹으며 쌀가게 방에서 참고서, 문제

집도 없이 공부해야 하는 상만이는 쌀 배달을 갔다가 으리으리한 집에서 부모님 사랑을 받고 지내는 허구를 만나게 된다. 같은 반 친구라고 하여 그 후부터는 허구 참고서를 빌려 공부도 하고 허구 부모님의 사랑도 나눠 가졌다. 그러다 우연히 허구가 쓴 글 〈여행자〉에 상만이가 자기 이름을 붙여 공모전에서 상도 받게 되고 여자친구도 사귀었으나 다 〈여행자〉에 나오는 각본대로 일이 일어나자 상만은 허구의 빈 껍데기가 되기 싫어 대학도 순천으로 가버린다. 나중에는 서울에 취직도 하여 직장인으로 살고 있다가 허구를 다시 만나 예전 관계로 돌아간다. 허구의 삶을 잘 안다고 한 상만은 허구의 과거에 자신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과 허구 부모님이 양부모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다.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상반되어 보이는 두 사람, 상만과 허구의 생애를 동해서 삶과 죽음, 허구와 진실,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를 뛰어넘으면서 독자들을 이 세계로 들어오게 하고 있다. 양극단으로 달려가는 두 사람의 생애를 체험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인생의 갈림길에 선다면 어떤 선택을 무엇 때문에 할는지 고민할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은 “자주 철학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라”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구절에서 가져온 것이라 한다. 저자는 일상에서 철학하기를 실천하는 것을 좋아해 이 책에서 ‘33일간의 철학 레시피’라고 기간을 명시해 놓고 있다.

임상철학가이자 철학교사이면서 철학 상담자인 안광복 저자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한 글로 안내를 하고 있다. 상처받는 영혼이 위로를 바랄 때, 욕망과 집착으로 괴로울 때, 매너리즘에 빠져 허덕일 때, 세상에 맞설 용기가 필요할 때, 미래를 여는 해안이 필요할 때 등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들을 33가지 상황별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아우렐리우스, 스피노자, 공자, 베나민, 아렌트 등 33가지 철학적 지혜를 현대적인 상황 속에 충분히 소화된 성찰로 이끌어낸다.

상황별로 읽다 보면 어느새 내가 고민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아니면 세대 간의 갈등, 사회적 문제 등 지금의 현실과 비슷해서 깜짝 놀라기도 한다. 이때 저자는 철학자들의 인간 탐구 방법, 어록, 생애를 소개하면서 철학으로 휴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철학적 사고와 행동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고 자신의 가치와 표현능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이 책으로 잠시 회복과 치유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2 철학으로 휴식하라

안광복 지음, 사계절 펴냄,
2020. 4. 16

“철학이 영혼의 질병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타고난 조건은 내가 어찌지 못한다. 여기에
매달려 봐야 삶에 대한 원망만 늘 뿐이다.
행복한 삶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열린다.”



“옛이야기 속에는 미래에
나타날 신기술이 숨어 있다.
옛이야기 특성상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기발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상상이라도 여러 사람을
거쳐 구전되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져 제법 훌륭한 기술이
등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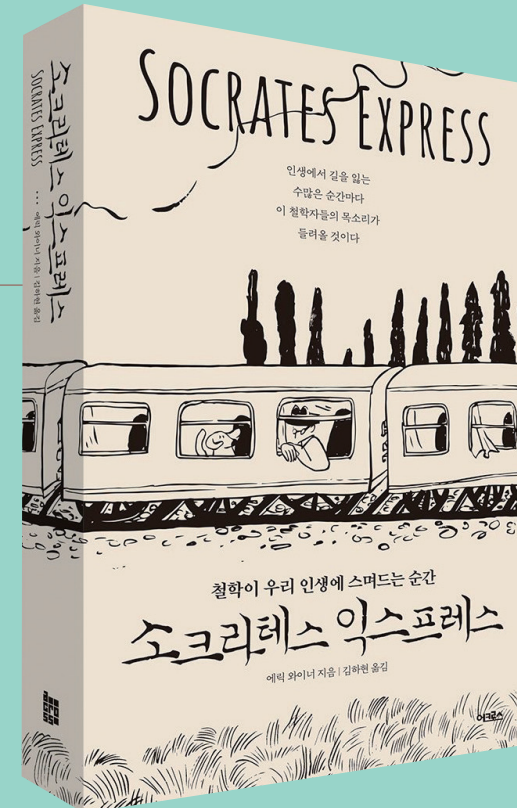
3
이지유의 이지
사이언스 - 옛이야기
이지유 지음, 창비 펴냄
2020. 3. 6

과학에 대한 경계심을 무장 해제시키는 유쾌한 과학책 시리즈 <이지유의 이지 사이언스> 중 옛이야기 편이다. 이 시리즈는 과학지식과 과학 방법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알아채도록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지구과학과 천문학을 전공한 저자는 누구나 과학책을 읽으며 '발견의 기쁨'을 느끼고 다양한 상상과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게 글을 쉽게 썼다고 했다. 이지 사이언스는 그런 면에서 이지유 작가가 사회적, 시대적 맥락 속에서 과학적 지식을 바라보게 해 과학적 재미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특히 옛이야기 편은 오래도록 내려오는 이야기를 과학적 눈으로 볼 때 궁금하고 흥미로운 분석대상이라고 했다. 옛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옛사람들의 삶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더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아쉽거나 궁금한 사건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과학적 사고력과 연결시켜 재미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옛이야기를 부분부분 의문을 제기하며 상상해 보는 게 얼마나 신선한 지 맛보았으면 하는 책이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철학적 여행가인 에릭 와이너는 이 책에서 여행에서 돌아오는 기차에서 여운이 퍼지듯 글을 써 책 속 철학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철학자 이야기를 특이하게 안내하는 것이다. 작가는 들어가는 말에서 정보와 지식, 지혜를 구분하고 있다. 정보는 사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이고 지식은 뒤죽박죽 섞인 사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반면 지혜는 뒤얽힌 사실들을 풀어내어 이해하고 결정적으로 그 사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했다. 그래서 지식은 소유하는 것이고 지혜는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지혜는 기술이며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습득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했는데 결국 인생은 우리 모두를 철학자로 만든다는 말과 연결이 된다고 말한다.

작가는 철학과 기차가 잘 어울린다고 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유물 같지만 삶의 중요한 부분 같다는 것이다. 철학은 지식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사고방식이다. '무엇'이나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것이다. 작가는 철학자 열네 명의 살아가는 방식을 출발에서 도착까지 제시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하는 법, 루소처럼 걷는 법, 소로처럼 보는 법, 간디처럼 싸우는 법, 공자처럼 친절하게 베푸는 법, 니체처럼 후회하지 않는 법, 보부아르처럼 늙어가는 법 등 되도록 활동적인 철학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사상을 결부해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 저자가 이끄는 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이 철학자들이 살아가는 지혜를 책에서 만나볼 수 있어 매우 흥미롭다.



1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에릭 와이너 지음, 김하현 옮김,
어크로스 펴냄
2021. 4. 28

“인생에서
길을 잃는
수많은 순간마다

이 철학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감동은 덤, 스포츠 드라마와 영화의 매력

지난 4월 종영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펜싱 선수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색다른 매력을 선사했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핸드볼을 소재로 실화를 재구성하여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선수들의 성장을 조명하며 재미와 감동을 전하는 스포츠 드라마와 영화를 소개한다.

힐링과 로맨스를 선사하는 스포츠 드라마

그동안 〈트리플〉과 〈역도 요정 김복주〉 등 여러 스포츠 드라마들이 부진하면서 ‘스포츠 드라마는 흥행이 어렵다’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존재했다. 각본 없는 드라마로 불리는 스포츠인 만큼, 각본을 통해 긴장감을 재현하는 데 한계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자극적인 막장과 잔인하고 치열한 정치, 범죄수사 소재에 지친 시청자들이 순수한 열정과 힐링을 찾기 시작하며 스포츠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 방영한 〈라켓소년단〉은 배드민턴계의 아이돌을 꿈꾸는 땅골마을 열여섯 소년소녀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엄마 미소를 유발했다. 주인공들의 치열한 도전기가 주요 요소지만, 땅골마을 농촌의 고즈넉한 풍경과 사람들의 소소한 삶이 힐링 포인트다. ‘그저 재미있어서’ 배드민턴을 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치열한 경쟁이 아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펜싱 스포츠에 로맨스를 결합시켰다. 주인공은 IMF로 소속 팀이 사라져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지만 스스로 시대의 아픔을 이겨내며 국가대표가 된다. 또한 라이벌 선수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아름다운 경쟁’의 표본도 보여준다. 청춘들의 서사와 펜싱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한층 신선한 드라마가 탄생할 수 있었다. 여기에 바통을 이어받아 현재 방송 중인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도 배드민턴 선수들의 로맨스를 표방하며 재미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라켓소년단



스물다섯, 스물하나

선수들의 성장을 그려낸 스포츠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킹콩을 들다〉 등은 실화를 바탕으로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각각 핸드볼, 역도라는 비인기 종목을 소재로 다뤘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2004 아테네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팀의 실화를 담았다. 주인공들은 대체로 30대 이후 여성들로 생계와 꿈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끝내 꿈을 포기하고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2000년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휩쓴 시골학교 역도부의 이야기를 담은 〈킹콩을 들다〉는 88올림픽 메달리스트였던 코치와 역도의 ‘역자도 모르면 소녀들’의 순수한 역도 도전기를 그려냈다.

〈국가대표 1〉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급조된 스키점프 국가대표 팀의 이야기다. 주인공들은 훈련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직접 점프대를 설치하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올림픽 유치에 실패하고 출전 박탈의 위기에 처하지만 자비로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다. 금메달을 획득한 것도 인기 종목도 아니었지만, 맨땅에 헤딩하듯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감동을 주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대체로 특별한 능력보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장해 나간다. 경쟁과 승패에 상관없이 목표를 갖고 노력하면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 영화의 진짜 매력이다.

DRAMA & MOVIE

영화 속 주인공들은 대체로 특별한 능력보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장해 나간다. 경쟁과 승패에 상관없이 목표를 갖고 노력하면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2라운드 에서 더블 포디엄 달성

국내 최정상 SUPER 6000 클래스에서
2, 3위 입상

마른 노면(DRY) 레이싱 타이어로
우수한 성적 선보여

넥센타이어가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하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SUPER 6000 클래스 2라운드에서 넥센타이어를 사용 중인 서한GP의 장현진 선수와 김중균 선수가 2위, 3위로 포디엄에 입상했다고 5월 26일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국내 레이싱팀인 서한GP에 올 시즌부터 새롭게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서한GP는 지난 22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펼쳐진 슈퍼레이스 SUPER 6000클래스 2라운드에서 넥센타이어와 함께한 2번째 경기 만에 더블 포디엄의 성과를 달성하며 넥센타이어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한GP의 정회원 선수 또한 5위로 결선을 마쳤으며, 넥센타이어의 워크스 팀인 엔페라 레이싱팀의 황도윤, 황진우 선수도 각각 7위, 8위로 2라운드를 마치며 넥센타이어를 사용 중인 모든 선수들이 포인트 피니시(10위 이내)를 달성했다.

이로써 올 시즌 처음으로 신설된 '타이어 제조사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넥센타이어가 1위를 달성했다. (타이어 제조사별 5대 선정 점수 합산) 또한, 이번 2라운드에서는 SUPER 6000 클래스 창설 이후 처음으로 주행거리가 50km 늘어난 150km 레이스로 진행되었음에도, 넥센타이어를 사용한 선수들이 타이어에 큰 이슈 없이 완주, 마른 노면(DRY) 레이싱 전용 타이어 '엔페라 SS01' 제품의 우수한 내구성능도 증명했다.



신규 TV 광고 ‘넥센에게 시키세요’ 론칭

타이어 교체, 관리, 렌탈 등
넥센타이어만의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내용 담아

넥센타이어가 '넥센에게 시키세요' 신규 TV 광고를 론칭했다.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넥센타이어의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넥센에게 시키세요'라는 광고 메시지에 맞춰 타이어 교체뿐만 아니라, 관리, 렌탈, 주문 방식 등 넥센타이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모습을 담았다.

넥센타이어는 MZ 세대의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광고 영상 제작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규 TV 광고는 TV 채널 및 유튜브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향후 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와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사회복지기관에 타이어 지원

넥센타이어가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교류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사회복지기관 차량 타이어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전 사업장 관할 지역 사회복지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한 이동환경을 위해 노후된 타이어를 교체·지원하는 이 사업은 강서구·창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양산시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연말까지 진행된다.

넥센타이어는 4월 14일 창녕공장에서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사랑과 나눔의 실천 업무협력 협약식 체결과 더불어 타이어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사회복지기관 차량은 매월 순차적으로 인근 타이어테크 매장 방문을 통해 타이어 교체 작업이 진행되며, 비용은 일체 당사에서 지원한다.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평가 에서 실버 등급 획득

환경, 노동 및 인권, 지속가능구매 항목에서
높은 평가 받아

지난해 ‘브론즈’ 등급에서
올해 한 단계 등급 상향

넥센타이어가 에코바디스의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성과 조사에서 ‘실버(Silver)’ 등급을 획득했다.

에코바디스는 국제 지속 가능성 표준을 기반으로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으로 160여 개국, 200여 개 산업, 7만 5,000개 이상의 기업을 매년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구매 등 4개 항목이며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 넥센타이어는 환경, 노동 및 인권, 지속가능구매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21년 평가에서 받은 ‘브론즈’ 등급에서 실버 등급으로 상향하며 지속가능성 기업의 입지를 다졌다.

넥센타이어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단체인 GPSNR에 가입하며 천연고무 구매에 대한 ESG 정책 강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엔젤위더스’ 운영 등 ESG 중심의 경영 체계 구축을 확고히 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2020년도부터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은 <ESG 보고서>를 발간하며 ESG 히스토리 및 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관련된 넥센타이어의 주요 활동들을 기록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사내 특별한
소식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헬로우 넥센〉
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hellonexen@nexentire.com

〈헬로우 넥센〉 여름호 이벤트 참여

〈헬로우 넥센〉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단의 QR 코드 스캔하기



이벤트 참여하기



인적사항 기입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프티콘 증정)

당첨자 확인과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The new N FERA AU7

업그레이드 된 흡음재로
향상된 소음 저감 성능

최상의 승차감과
고속주행 안정성

뛰어난
사계절 주행 성능



NEXEN TIRE
we got you

80 ANNIVERSARY
SINCE 1942